

文化財學科 碩士學位論文

慶州 崇福寺址 伽藍配置와 石造美術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박 임 관

2018年 12月

慶州 崇福寺址 伽藍配置와 石造美術 研究

指導教授 吳 世 德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박 임 관

박임관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정병로



審査委員 강봉원



審査委員 오 세덕



慶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12月

目 次

I. 머리말	1
II. 숭복사의 창건	7
1. 기록 검토	7
2. 입지 분석	12
III. 숭복사지의 석조유물	17
1. 동·서 삼층석탑	17
2. 쌍신두 귀부	25
IV. 숭복사지 가람배치	37
1. 가람배치 분석	37
2. 가람배치 특징	49
V. 숭복사지 가람배치와 석조유물의 의의	55
1. 숭복사지의 건축사적 의의	55
2. 석조유물의 미술사적 의의	58
VI. 맺음말	70
참고문헌	73

【表 目 録】

<표 1> 숭복사지 조사 현황	4
<표 2> 숭복사비명 내용 요약	7
<표 3> 연도별 숭복사 연혁	11
<표 4> 동삼층석탑 상층기단 팔부중상 배치 현황	18
<표 5> 서삼층석탑 상층기단 팔부중상 배치 현황	21
<표 6>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 양식 비교	23
<표 7> 신라 쌍신두 귀부 현황	25
<표 8> 신라 쌍신두 귀부 세부 형식	35
<표 9> 신라 쌍신두 귀부 비교	36
<표 10> 숭복사지 건물지 평면	39
<표 11> 신라 사찰의 금당 계단 수	48
<표 12> 토함산 일원 사찰의 건축적 특징	57
<표 13> 통일신라 쌍탑 건립 현황	60
<표 14> 『無垢淨經』을 소의경전으로 건립·중수된 9세기 불탑 사례	63
<표 15> 願塔 건립과 발원층 현황	66

【插 圖 目 錄】

삽도 1. 송복사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14
삽도 2. 송복사지 동·서 삼층석탑 팔부중상 배치 비교	22
삽도 3. 송복사지 석탑 복원도	24
삽도 4. 송복사지 1차 발굴 평면(『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內遺蹟(1·2次)』) 40	
삽도 5. 송복사지 동쪽 회랑지 발굴 평면(『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內 遺蹟(1·2次)』)	41
삽도 6. 송복사지 자연석 기단(『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內 遺蹟(1·2次)』) 43	
삽도 7. 불국사 자연석 기단	43
삽도 8. 원원사지 자연석 기단	43
삽도 9. 동화사 금당암 대석단 (朝鮮古蹟圖譜)	43
삽도 10. 송복사지 서쪽 사역 끝단	45
삽도 11. 불국사 극락전 영역 회랑 끝단	45
삽도 12. 송복사지 금당 전경	47
삽도 13. 송복사지 금당 평면도	47
삽도 14. 송복사지 금당 방형초석	47
삽도 15. 금당초석의 시기적 변천과정	47
삽도 16. 일제강점기 후지시마 가이지로 도면(한의 건축문화)	50
삽도 17. 신라문화유산 조사단 송복사지 가람배치도(『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內遺蹟(1·2次)』)	50
삽도 18. 사천왕사지 귀부전지	53
삽도 19. 사천왕사지 누교	53
삽도 20. 불국사 석누조	56
삽도 21. 송복사 석누조	56
삽도 22. 원원사 석누조	56

【圖 版 目 錄】

도 1. 송복사지 전경 (오세윤 촬영, 2005년)	79
도 2. 송복사지 동·서 삼층석탑 전경 (오세윤 촬영, 2005년)	79
도 3. 송복사지 토함산 자락 전경	80
도 4. 송복사지 비(복원), 동·서삼층석탑 (오세윤 촬영, 2016년)	80
도 5. 송복사지 동·서 삼층석탑 전경 (2018년)	80
도 6. 송복사지 동·서삼층석탑	81
도 7. 송복사지 서·동삼층석탑	81
도 8. 송복사지 동삼층석탑	81
도 9. 송복사지 동삼층석탑 1층 탑신	81
도 10. 송복사지 동삼층석탑 옥개석	81
도 11. 송복사지 동삼층석탑 찰주공	81
도 12. 송복사지 서삼층석탑	82
도 13. 송복사지 서삼층석탑 탑신부	82
도 14. 창림사지 귀부 귀신 목부분	82
도 15. 창림사지 귀부 앞발	82
도 16. 창림사지 귀부 꼬리 세부	82
도 17. 창림사지 귀부 비좌 부분	82
도 18. 무장사지 귀부 앞발	83
도 19. 무장사지 귀부 비좌 부분	83
도 20. 무장사지 귀부 귀두 부분	83
도 21. 법광사지 귀부 지대석 및 앞발	83
도 22. 법광사지 귀부 뒷발 부분	83
도 23. 법광사지 귀부 비좌 부분	83
도 24. 송복사지 귀부 귀두 부분	84
도 25. 송복사지 귀부 측면	84

도 26. 숭복사지 쌍신두 귀부 복원	84
도 27. 傳 인룡사지 석탑재 팔부중상	84
도 28. 창림사지 발굴 석탑 팔부중상	84
도 29. 창림사지 삼층석탑	84
도 30. 무장사지 삼층석탑	85
도 31. 법광사지 삼층석탑	85
도 32. 도동서원 김굉필 귀부	85
도 33. 도동서원 김굉필 귀부 귀두	85

I. 머리말

신라는 불교의 국가 공인 이후 왕실 주도 아래 분황사, 황룡사, 사천왕사 등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현재까지 범등이 어이지고 있는 사찰 외에도 경주 일원에 200여 개소에 이르는 많은 절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¹⁾ 신라에서 불교문화의 확산과 그에 따른 불교건축술도 발전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경주의 많은 절터 가운데 하나인 崇福寺址는 외동읍 말방리 토함산의 서쪽 능선 말단부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였으며, 崔致遠이 896년에 지은 四山碑銘이 남아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三國遺事』의 내용을 보면, 숭복사는 원래 鵠寺로 불리었으며 崔致遠이 지은 비석이 있는 곳으로²⁾ 알려져 있는데, 사지에서 출토된 碑片에 의하여 『三國遺事』에 기록된 鵠寺로 확인되었다.³⁾ 崇福寺碑銘에 따른 鵠寺의 유래를 살펴보면, ‘숭복사는 원성왕후인 숙정왕후의 외조부 되는 파진찬 김원량이 창건한 절인데 고니 모양의 바위가 있었으므로 곡사라고 했다. 그러나 뒤에 원성왕릉을 풍수설에 의해 이곳에 조영함에 따라 절[곡사]을 지금의 숭복사지로 옮기게 되었다’⁴⁾고 한다. 이를 통해 보면 현재

1)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조사된 신라시대 경주지역의 사지는 대략 200여 개소로 확인된다. 박방룡은 경주지역 신라시대 사지 24곳, 통일신라시대 사지 180곳으로 모두 204곳으로 조사하였다.(박방룡, 『신라도성』, 학연문화사, 2013, pp.126~132.) 황상주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신라 사지를 211곳으로 조사하였다.(황상주, 「경주지역 신라사지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 “王之陵在吐含岳西洞鵠寺(今崇福寺)有崔致遠撰碑” 『三國遺事』 卷2, 紀異, 元聖大王條.

3)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 1919, (아세아문화사, 1976.)

黃壽永, 「新羅 崇福寺 碑片」, 『考古美術』 14, 考古美術同人會, 1961.

洪思俊, 「崇福寺 碑片」, 『考古美術』 15, 考古美術同人會, 1961.

黃壽永, 「新羅 崇福寺 碑片」, 『考古美術』 96, 考古美術同人會, 1968.

崔柄憲, 「大崇福寺碑文」,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古代篇), 198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4) “都史多天衆妙之妙何名可名金城之离日觀之麓有伽藍號崇福者乃先朝嗣位之初載奉爲烈祖元聖大王園陵追福之所修建也元聖大王園陵追福之所修建也粵若稽古寺之濫觴審新刹之覆簣則昔波珍浪金元良者炤文王后之元舅肅貞王后之外祖也身雖貴公子心實眞古人始則謝安縱賞於東山儼作歌堂舞館終乃慧遠同期於西境捨爲像殿經臺當年之鳳管鳴絃此日之金鍾玉磬隨時變改出世因緣寺之所枕倚也巖有鵠狀仍爲戶榜能使鶯廬長價永令鵠殿增輝則彼波羅越之標形崛嵒遮之紀號詎若飛千里以取譬變雙林以搢題者哉但茲地也威卑驚頭德峻龍耳與畫金界宜闔玉田泊”
崔致遠, 「大崇福寺碑銘并序」,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1992.

송복사지 자리가 원래의 곡사가 아니라 원래 곡사 자리는 지금의 패릉, 즉 원성왕릉 자리임을 알 수 있으며, 송복사는 798년 돌아간 원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로 추정할 수 있다.⁵⁾ 이후 865년(경문왕 5)에 대대적으로 송복사 중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⁶⁾ 당시 가람의 형태와 주요 건물지의 배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885년(현강왕 11) 가을에 현강왕은 곡사의 이름을 ‘대송복사’로 바꾸었는데⁷⁾, 왕실에 의해 중창불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불사였던 것으로 보인다.⁸⁾ 최치원은 886년 현강왕으로부터 송복사비명을 작성하라는 명을 받아⁹⁾ 896년(진성왕 10)에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자리의 송복사는 8세기 말에 창건되어 여러 차례 중건되었으며, 송복사비는 9세기 말에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 외에도 송복사의 연혁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로 金堂址, 石塔, 雙身頭 龜趺 등을 볼 수 있다. 송복사지에는 현재 석축 일부와 금당지 등의 건물지가 확인되며, 석탑은 2기가 남아 있다. 송복사지 귀부로 알려진 쌍신두 귀부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져 있고 碑片 일부가 국립경주박물관과 동

5) 이근직, 「토함산지역의 역사적 고찰」, 『토함산지역 불교유적 조사 연구』,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2000, p.261.

6) 송복사의 대대적 개수는 송복사비명에서 경문왕 즉위 3년 뒤 꿈에 원성왕이 나타나서 “...불상을 세우고 능원을 꾸며 호위하고자...” 라고 하여 864년 이후로 추정된다. 迺見聖祖大王, 撫而告曰, 余而祖也, 而欲建佛像, 飾護予陵域, 小心翼翼 經始勿亟 佛之德, 予之力, 庇爾躬, 允執厥中, 天祿永終 (곧 <꿈에> 聖祖 元聖大王을 뵈온즉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의 선조이니라. 네가 불상을 세우고 나의 陵域을 꾸며 호위하고자 하는데, 조심하고 삼가 할 것이며 일을 서두르지 마라. 부처님의 덕과 나의 힘이 네 몸을 감싸줄 것이니 진실로 中道를 잡아 하늘이 주는 복록을 길이 마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역주 한국고대금석문-통일신라 비문Ⅱ, 송복사비 번역문.

7) “中和乙巳年秋敎曰善繼其志善述其事永錫爾類在我而已先朝所建鵠寺宜易勝爲大崇福其持經開士提綱淨吏南畝以資供施一依奉恩故事(奉恩寺乃聖惠大王追福建寺)其故波珍浪金元良所捨地利輸轉非輕宜委正法司別選二宿德編籍爲常住薦祉于冥路則有以見居上位者无幽不察結大緣者有感必通”

崔致遠, 「大崇福寺碑銘并序」,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1992, pp.159~160.

8) 장일규, 「송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역사학보』 192, 역사학회, 2006, p.37.

9) “慶曆景午年春顧謂下臣曰禮不云乎銘者自名也以稱其先祖之德而明著之後世此孝子孝孫之心也先朝締構之初發大誓願金純行與若父肩逸嘗從事於斯矣銘壹稱而上下皆得爾宜譔銘”

崔致遠, 「大崇福寺碑銘并序」,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1992, p.161.

국대학교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석탑 2기의 기단부에는 팔부중상, 1층 탑신 4면에는 문비가 조각되어 있고 귀부 역시 두 마리의 거북이 몸이 합쳐진 쌍신두 형식으로 숭복사지의 석조유물은 미술사적으로도 매우 주목된다.

숭복사지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일제강점기부터 있어 왔다. 1929년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海治郎]에 의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절터를 조사한 후 塔址와 金堂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실측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숭복사 伽藍에 대한 추정 복원도를 작성하였다.¹⁰⁾ 또한 “...國寺大雄...” 및 “蓋瓦大雄”의 명문 평기와를 발견하고 절은 조선시대까지 지속된 ...國寺라고 불렀던 절이라고 했다.¹¹⁾ 그 후 1932년 8월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와 함께 다시 절터를 찾았고 동탑 돌무더기 속에서 비석편을 발견하여 비편의 연구로 이 절이 신라시대 곡사에서 후에 숭복사로 고친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1965년에는 新羅五岳調査團事業의 하나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¹²⁾ 이후 숭복사지에 대해서는 경주시광역시표조사¹³⁾의 일환으로 지표조사가 진행되었다. 또 2000년에 발간된 『토함산지역 불교유적 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황정리된 바 있다.¹⁴⁾ 이후 2009년~2010년에는 숭복사비 복원을 위해 임비지점 선정의 일환으로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동회랑지 일부와 장대석렬, 적심 등이 확인되었으나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비지점 및 귀부가 있었던 자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회랑지의 일부가 조사되어 가람배치를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¹⁵⁾ 숭복사지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¹⁶⁾

10) 藤島海治郎, 『建築雜誌』 577號, 1933.

11) 藤島海治郎, 『朝鮮建築史論』, 1930.

12) 秦弘燮, 「慶州 甘山寺址·崇福寺址의 調査」, 『考古美術』 58, 考古美術同人會, 1965.

13) 경주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경주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5.

14)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토함산지역 불교유적 조사연구』, 2000.

15) 경주시·(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內 遺蹟(1·2次)』, 2011.

최순조·황보은숙, 「崇福寺 伽藍配置의 檢討」, 『경주사학』 33, 경주사학회, 2011, pp.47~85.

16) 경주시·(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위 보고서, p.10의 <표 1>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표 1> 송복사지 조사 현황

구분	조사일	내 용	비 고
1	1929년 5월~8월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海治郎]의 절터 조사 - 실측도를 토대로 복원도 작성, '國寺大雄' 평기와 발견, 사지의 이름을 '말방리사지'로 명명	
2	1930년 10월	송복사 귀부를 국고에 귀속함 (국립경주박물관 유물목록대장)	
3	1931년 8월 23일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최재규, 최남주 등의 답사 - 비편 발견	
4	1933년	후지시마 가이지로가 「慶州を中心とする新羅時代一般型三層石塔論」(『建築雜誌』昭和8년 11월)을 통하여 절 이름을 '廢洞鵠寺'로 명명하고 두 답을 상세하게 분석	
5	1935년 1월 24일	최남주 비편 발견	
6	1938년 7월 30일	입실소학교에서 비편 기증	
7	1961년	일찍이 발견된 비편이 황수영에 의해 학계에 보고	
8	1965년 3월 1일	절터 조사(정영호)	
9	1975년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회고담 (『韓の建築文化』)	입비지점을 금당지에서 동쪽으로 약 35m, 남쪽으로 약 36m 지점으로 기록
10	1978년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실(박방룡) 조사 - 김종식의 증언에 의해 귀부가 있던 자리 추정	입비지점을 금당지 남동쪽 모서리에서 약 10m 지점으로 추정
11	1994년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지표조사	
12	1997년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유적지도 연구팀 조사	
13	2000년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연구팀 조사	
14	2009~2010년	송복사비 복원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숭복사비에 대해서는 碑片을 통한 복원 연구¹⁷⁾와 비문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원성왕과 경문왕대 이후 왕권강화를 위한 배경으로서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하는 역사학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편이다.¹⁸⁾

석탑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건립시기와 상층기단부의 팔부중상, 1층 탑신의 문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 왔다. 건립 시기는 원성왕의 왕릉을 조영하면서 숭복사가 창건되었다는 것과 조각수법 등을 근거로 8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되었다는 견해¹⁹⁾, 팔부중상의 조각을 근거로 9세기 말로 보는 견해²⁰⁾, 동탑은 9세기 중반, 서탑은 헌강왕대인 9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²¹⁾ 등이 있는데, 숭복사 창건시기와 맞물려 대체로 9세기 대에 건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상층기단에 조각된 팔부중상과 1층 탑신 4면에 조각된 문비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팔부중상에 대한 연구²²⁾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되거나, 문비 역시 석탑 문비조각의 전체 흐름 속에서 검토²³⁾되어 왔으며, 대체로 석탑 건립시기와

17) 尹善泰, 「新羅 ‘崇福寺碑’의 復元-結·苦의 細註와 관련하여-, 『불교미술』 16, 동국대학교박물관, 2000, pp.91~135.

18) 曠승훈, 「崔致遠의 四山碑銘 撰述에 대한 試論」, 『역사와 실학』 19·20, 역사실학회, 2001, pp.71~97.

장일규, 「숭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역사학보』 192, 역사학회, 2006, pp.35~65.

박남수, 「新羅 下代 王室의 祭禮와 元聖王 追崇의 정치사회적 의의」, 『사학연구』 108, 한국사학회, 2012, pp.39~69.

박남수, 「新羅 崇福寺碑 板本の 갈래와 崔致遠의 割註」, 『신라사학보』 27, 신라사학회, 2013, pp.233~265.

19) 신용철, 「統一新羅 二重基壇石塔의 形式과 編年」, 『東岳美術史學』 9, 동악미술사학회, 2008, p.218.

20) 水野さや, 「慶州崇福寺址東・西三層石塔の八部衆像について」, 『佛教藝術』 249, 2000. p.54.

21) 한재원,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像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111~112.

22) 張忠植, 『新羅石塔研究』, 일지사, 1987, pp.182~186.

曹元榮, 「신라하대 팔부신중상 연구」, 『역사와 경계』 39, 부산경남사학회, 2000, pp.37~78.

田正中, 「新羅石塔 八部衆像의 樣式과 變遷」, 『文化史學』 16, 한국문화사학회, 2001, pp.113~158.

한재원,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 圖像과 配置 研究」, 『미술사연구』 20, 미술사연구회, 2006, pp.197~236.

신용철, 「新羅 八部衆 圖像 전개에 있어 雙塔의 역할」, 『정신문화연구』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pp.135~160.

오세덕, 「雲門寺 東·西 三層石塔에 관한 고찰」, 『新羅文化』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pp.316~318.

23) 김은화, 「韓國 塔婆의 門扉 研究」, 『東垣學術論文集』 6,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3.

申龍澈, 「신라석탑 문비조각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3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석탑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는 신라석탑의 전체적인 양식 흐름 속에서 단편적으로 검토되어 온 것이 대부분으로 송복사지 석탑 자체에 대해 단독으로 정리된 연구논문은 없다. 한편 송복사지 귀부인 雙身頭 龜趺에 대해서는 엄기표에 의해 정리된 논문이 유일하다.²⁴⁾

지금까지 송복사지 및 관련 석조유물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학 분야와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고고학 분야 및 석탑과 귀부에 대한 미술사 분야의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송복사의 연혁, 가람배치, 석조유물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어 송복사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송복사의 창건과 연혁, 가람배치, 석조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복사지가 통일신라 사지에서 갖는 위치와 석조유물의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II장에서는 송복사의 창건에 대해 문헌기록 검토와 입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송복사지의 석조유물에 대한 양식, 건립시기 등을 검토해보겠다. IV장에서는 송복사지 가람배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송복사지 가람배치가 통일신라 사지에서 갖는 위치를 살펴보고, 석조유물의 건축사적·미술사적 의의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4) 엄기표, 「新羅 雙身頭 龜趺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19, 한국문화사학회, 2003, pp.97~123.

II. 숭복사의 창건

1. 기록 검토

崇福寺 창건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三國遺事』와 崇福寺碑銘이 있다. 먼저 『삼국유사』를 보면 숭복사는 원래 鵠寺로 불리었으며, 崔致遠이 지은 비석이 있는 사찰²⁵⁾로 확인된다. 숭복사에 관한 주요 기록은 崇福寺碑銘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숭복사비의 내용을 중심으로 숭복사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겠다.

숭복사비는 서문과 숭복사의 연혁을 다룬 본문, 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다시 숭복사의 개관, 鵠寺의 이건과 원성왕릉 조성과정, 곡사의 중수와 원성왕릉 수리에 관한 경문왕의 사적, 경문왕의 홍거에 따른 상례와 대숭복사의 사액에 대한 헌강왕의 사적, 선왕의 문물을 유지한 정강왕의 사적, 숭복사비 건립에 대한 진성왕의 사적으로 구분된다.²⁶⁾

<표 2> 숭복사비명 내용 요약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 용
서문			- 王者는 父祖가 쌓은 덕업을 기반으로 해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크게 세움 - 군자의 기풍을 드날리고 梵王의 佛道에 좇아 드는 것
숭복사 연혁	1. 숭복사 개관		- <u>숭복사(곡사)의 위치 서술</u> - <u>원성대왕 園陵 조성에 따라 명복을 빌기 위해 곡사 중건</u>
	2. 鵠寺의 이건과 원성왕릉의	① 鵠寺의 유래	- <u>炤文王后의 元舅, 肅貞王后의 外祖인 波珍痕 金元良의 기진과 곡사 창건</u>

25) “王之陵在吐含岳西洞鵠寺(今崇福寺)有崔致遠撰碑” 『三國遺事』 卷2, 紀異, 元聖大王條.

26) 박남수, 「新羅 下代 王室의 祭禮와 元聖王 追崇의 정치사회적 의의」, 『사학연구』 108, 한국사학회, 2012, pp.42~44. <표 2>는 박남수, 위 논문, pp.43~44에서 인용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 용
	구성 과정	② 장지의 선정과 왕릉 조성 논의	- 貞元 무인년(798, 원성왕 14) 겨울, 왕 자신의 遺敎로 因山을 명함 - 梵廟를 靈隧로 고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협의함 - 靑鳥의 택지 → 龜筮, 龍과 諸天의 신이 환희
		③ 곡사의 이건과 왕릉 조성	- 紺宇 改創 : <u>寺宇를 이건</u>하였으나 아직 化城과 같이 되지는 못함 - 왕릉 주변의 丘隴을 매입
	3. 곡사의 중수와 원성왕릉의 수리 (경문왕의 사적)	① 곡사의 중수 발원	- 先祖에게 수치를 끼칠까 염려하여 <u>불사를 일으킬 것을 발원</u> - 분황사 승려 嵩唱에게 청하여 梵居를 중수하겠다는 뜻을 부처에게 아뢰도록 함 - 金純行을 보내어 선조의 덕업을 선양하려는 성의를 墓에 고하게 함
		② 경문왕의 즉위와 당의 책봉에 따른 고유	- 헌안왕의 홍거사실을 唐에게 알림 - 경문왕 5년(865) 당의 사신 胡歸厚로부터 詔命과 冊封을 받음 - 太弟 相國에게 淸廟의 제사에 致齊하게 하고 玄扃에 대신 參謁함
		③ 곡사의 중수와 柏城의 수리	- 聖祖大王의 현몽 - 華嚴 大德 釋 決言이 효성을 펴고 명복을 빌기 위해서 <u>곡사에서 5일동안 講經 법회를 개최함</u> - <u>농한기를 틈타 곡사의 중수 추진 : 성전구성</u> - 별을 점치고 날을 헤아려 공사 시행 - 중수공사 : 影幀을 모신 別室과 連房, 공양간을 增嵩 改作함
	4. 대승복사의 사액 (헌강왕의 사적)	① 경문왕의 홍거와 헌강왕의 喪次	- 寢門에서 內豎에게 안부를 묻지 못하게 된 것을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翼室에서 喪次의 주인이 되는 일(宅宗)을 遵行
		② 헌강왕	- <u>鵠寺를 大崇福寺로 고쳐 사액함</u>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 용
		11년(885) 대승복사 사액과 사찰 운영 방식 정비	- 奉恩故事에 따라 불경을 受持하는 開士와 기강을 확립하는 淨吏가 田地를 가지고 공양과 보시에 이바지하게 함 - 김원량이 희사한 땅의 산물을 轉運하는 일은 正法司에 위임함
	5. 정강왕의 사적		선왕의 문물을 유지
	6. 승복사비 제작 (진성왕의 사적)		<u>경문왕의 불사에 대한 공업을 새기고자 승복사비 제작</u>
비명			<u>진성왕 10년(896년) 승복사비 완성</u>

위 <표 2>에서 보듯이 승복사비명에는 승복사의 유래와 기원, 곡사의 중수, 비명 찬술 등의 과정이 시대에 따라 소상히 정리되어 있다. 승복사의 전신은 鵠寺로 원래는 원성왕릉[괘릉]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원성왕이 돌아가고 난 뒤 원성왕릉을 조영하기 위해 현재의 승복사지 자리로 고쳐 세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전신인 곡사를 이 건한 것이지만, 승복사의 실질적 창건은 798년 원성왕을 追福하기 위해 옮겨 세운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경문왕은 헌안왕이 흥거하자 백성의 추대를 받고 왕위에 올라 조상을 모시고자 佛事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로 일으킨 불사가 바로 곡사의 중창이었다. 재위 2년째 되던 해인 862년에 분황사 승려 승창과 김순행을 각각 부처와 종묘에 보내 중창의 의지를 알렸다. 경문왕의 곡사 중창은 불법의 존숭과 수행과 함께 조상에게 효성을 다하려는 군왕의 추복 불사로, 불사를 통해 경문왕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경문왕계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²⁷⁾ 경문왕은 책봉을 통해 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이후 꿈에서 원성왕을 보았다고 하며 곡사를 중창한다.²⁸⁾ 화엄대덕 결언을 불러 곡사에서 경전을 강경하면서

27) 장일규, 「승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역사학보』 192, 역사학회, 2006, p.43.

28) “於是孝誠旁達 思夢相符 迺見聖祖大王 撫而告曰 余而祖也 而欲建佛像 飾護予陵域 小心翼翼

곡사 중창이 조덕을 기리기 위한 불사임을 널리 알리는데, 이때 경문왕은 중실과 승려 등 측근 세력의 도움을 구한다.²⁹⁾ 이를 통해 볼 때, 곡사 중창은 조상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경문왕의 의지이지만, 나라의 기쁨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그것은 경문왕을 중심으로 하는 측근 세력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불사였던 셈이다.³⁰⁾

이후 헌강왕 11년(885년) 가을에 헌강왕은 곡사의 이름을 ‘대승복사’로 바꾸고, 보살과 관리를 파견하여 재정을 돌보았으며, 국가 소속의 정법사를 예속시켰다. 그는 곡사를 중창한 경문왕의 뜻을 계승하면서 승복사와 왕실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후 886년 헌강왕은 최치원에게 승복사비명을 작성하라는 명을 내린다.³¹⁾ 최치원 집안은 그동안 경문왕계 왕실이 추진한 불사에 깊이 참여하였으며, 불사를 통한 왕권 강화 작업에도 긴밀히 관계하였다.³²⁾ 이에 헌강왕은 경문왕의 곡사 중창 의지를 알렸던 최치원의 아버지 최견일의 행적을 거론하여 그의 집안이 일찍이 승복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들어 비명을 짓도록 하였다. 그 뒤 정강왕도 승복사를 중요시했던 헌강왕의 뒤를 이었고, 진성왕은 미처 완성되지 못한 비문의 찬술을 독려하여 896년 승복사비명이 완성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곡사, 즉 승복사는 창건부터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문왕은 곡사의 중창 이유를 ‘선조의 덕업’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공표했을 만큼 승복사의 중창은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고

經始勿亟 佛之德 予之力 庇爾躬 允執厥中 天祿永終 … 遽命有司 虔修法會 華嚴大德釋決言承旨 於當寺 講經五日 所以申孝思而薦冥福也”

29) “諸宗臣繼宗勛榮以下 協議上言曰 妙願感神 慈靈現夢 誠因君志先定 果見衆謀僉同 是寺也成九族多慶 幸值農 請興杼工”

“爰用擇人龍於建禮仙門 舉僧象於昭玄精署 乃命宗室三良 曰端元毓榮裕榮 與釋門二傑 曰賢諒神解 及贊導僧崇昌 督其事”

30) 장일규, 위 논문, p.45.

31) “慶曆景午年春顧謂下臣曰禮不云乎銘者自名也以稱其先祖之德而明著之後世此孝子孝孫之心也先朝締構之初發大誓願金純行與若父肩逸嘗從事於斯矣銘壹稱而上下皆得爾宜撰銘”
崔致遠, 「大崇福寺碑銘并序」,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1992, p.161.

32) 장일규, 「최치원의 화엄승전 찬술과 해인사의 화엄사상」, 『신라사학보』 창간호, 2004, pp.220~231.

권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숭복사의 중창은 경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첫 번째 ‘修造役事’로, 원성왕을 매개로 각 분과 관념을 없애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시도였다.³³⁾ 이에 경문왕계 왕실은 숭복사의 중창을 통해 왕실의 위상을 강조하려고 하였으며, 중창 불사에는 종실 인물도 다수 참여하였다. 이는 곡사, 즉 숭복사가 원성왕릉의 조영부터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원성왕을 追福하는 원찰이었던 까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숭복사비명의 내용으로 보건대, 숭복사는 현재의 위치로 이진한 뒤에도 최소 2차례 이상 대규모의 중창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왕과 종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중창이 이뤄진 것은 숭복사가 왕권을 강화하고 경문왕계 세력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불사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숭복사 창건과 중수 관련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숭복사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비 고
798년 (원성왕 14)	- 원성왕릉을 조영하기 위해 곡사를 현재 숭복사지 위치로 이진	실질적 숭복사 창건
862년 (경문왕 2)	- 곡사 중수 발원	
865년 (경문왕 5)	- 원성왕 현몽, 곡사 중창, 곡사에서 5일 동안 講經법회 개최	
885년 (현강왕 11)	- 鶴寺를 大崇福寺로 고쳐 사액 - 정법사 예속 등 사찰 운영방식 정비	
886년 (현강왕 12)	- 최치원에게 숭복사비명을 짓게 명함	
896년 (진성왕 10)	- 숭복사비 완성	

33) 김창겸, 「新羅 景文王代 「修造役事」의 政治史的 考察-王權強化策과 관련하여-」,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1998, pp.53~58 및 pp.67~68.

2. 입지 분석

승복사의 사찰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주에서 사찰들이 건립되는 입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주의 도시 발전은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는데, 경주의 하천은 형산강의 발원지인 麟川[기린내]이 북류하면서 大川과 합류한 西川, 월성을 감싸고 도는 南川, 경주시가지를 관통하는 北川이 합류하여 형산강의 본류를 형성하고, 이는 북쪽으로 흘러 포항 영일만으로 들어간다. 이를 배경으로 경주에서 사찰의 입지를 살펴보면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 발달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불교를 공인한 신라는 527년 興輪寺 창건³⁴⁾을 시작으로 永興寺(514년~536년), 皇龍寺(553년), 祇園寺(566년), 實際寺(566년), 南山之寺(587년 이전), 三郎寺(597년), 天柱寺(6세기 후반~7세기 전반?), 芬皇寺(634년), 靈廟寺(635년), 金光寺(635년), 四天王寺(679년), 望德寺(685년) 등의 사찰이 건립된다. 이 가운데 영흥사, 황룡사, 지원사, 실제사, 남산지사, 삼랑사, 천주사, 영묘사, 분황사, 금강사 등의 사찰은 대부분 서천의 동안을 중심으로 개창된다.³⁵⁾

즉, 도시 발전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황남동 일원 天鏡林을 중심으로 6세기 초반부터 개창되기 시작하다가 이어서 7세기부터는 도시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시가지의 외곽지역으로 분산되어 창건되기 시작한다. 특히 궁성인 월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확장과 함께 사찰의 건립 역시 남산 일원, 남산 주변 등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³⁶⁾ 경주에서 중요 사찰이 창건된 순서를 보면 서쪽 서천변에 흥륜사와 영흥사가 건립되고 나서 점차 월성의 동쪽으로 옮겨가 황룡사, 분황사 등이 건립된다. 이어서 흥륜사 북편의 서천변이 개발되면서 삼랑사가 창건되었고, 다음으로 남산 주변이 개발되어 사천왕사가 창건되었으며, 이어 남천 이남이 개발되어 담엄사를 창건하였다.³⁷⁾ 이렇듯 현재의 황남동

34) 『三國遺事』卷3 興法 第3 原宗興法 厭觸滅身條.

35) 이근직, 「신라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 『동악미술사학』 11호, 동악미술사학회, 2010, p.107.

36) 오세덕, 「경주 普門洞 寺址에 관한 고찰」, 『古文化』 8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3, pp.92~93.

일원을 기점으로 조성되던 시가지가 점차 확산되는 것과 함께 사찰 건립도 7세기 말~8세기에 들어 시가지 중심에서 낭산, 남산 등 외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주에서의 사찰 건립에 따른 입지는 현재 남아 있는 석탑 양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경주 일원에 남아 있는 7~8세기 석탑 건립 양상을 보면 먼저 감은사, 고선사는 경주 동쪽의 감포와 토함산 방면에서 시작되어 황복사지 석탑의 건립으로 점차 왕경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쪽으로 명활산성 너머 왕경 중심까지 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일원에 건립된 석탑으로는 장항리사지 동·서 오층석탑, 황룡사지(추령제) 삼층석탑³⁸⁾, 천군리사지 동·서 삼층석탑, 마동사지 삼층석탑, 불국사 삼층석탑, 무장사지 삼층석탑³⁹⁾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8세기 대에 건립된 것으로 토함산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신라에서 토함산이 갖는 불교문화의 특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왕경의 북쪽과 서쪽 방면에 건립된 석탑들 역시 용강동, 황성동 범위까지 넘어 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원리 오층석탑, 용명리사지 삼층석탑이 해당된다. 남쪽 방면으로는 경주 남산 부근의 이거사지 석탑⁴⁰⁾, 남리사지 삼층석탑⁴¹⁾ 등이 있으며, 관문성 근처의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 등이 해당되어, 역시 사천왕사지 범위 바깥쪽에 해당된다. 즉, 신라의 건탑문화가 목탑에서 석탑으로 전환되면서 석탑 건립이 점차 확산되는 과정에서 왕경지역까지 석탑 건립이 과급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²⁾ 즉, 시가지 내에 건립되는 사찰들은 목탑 중심의 건탑문화의 영향 아래에

37) 김재홍, 「신라 왕경의 개발 과정과 발전 단계」, 『한국사학보』 52, 고려사학회, 2013, p.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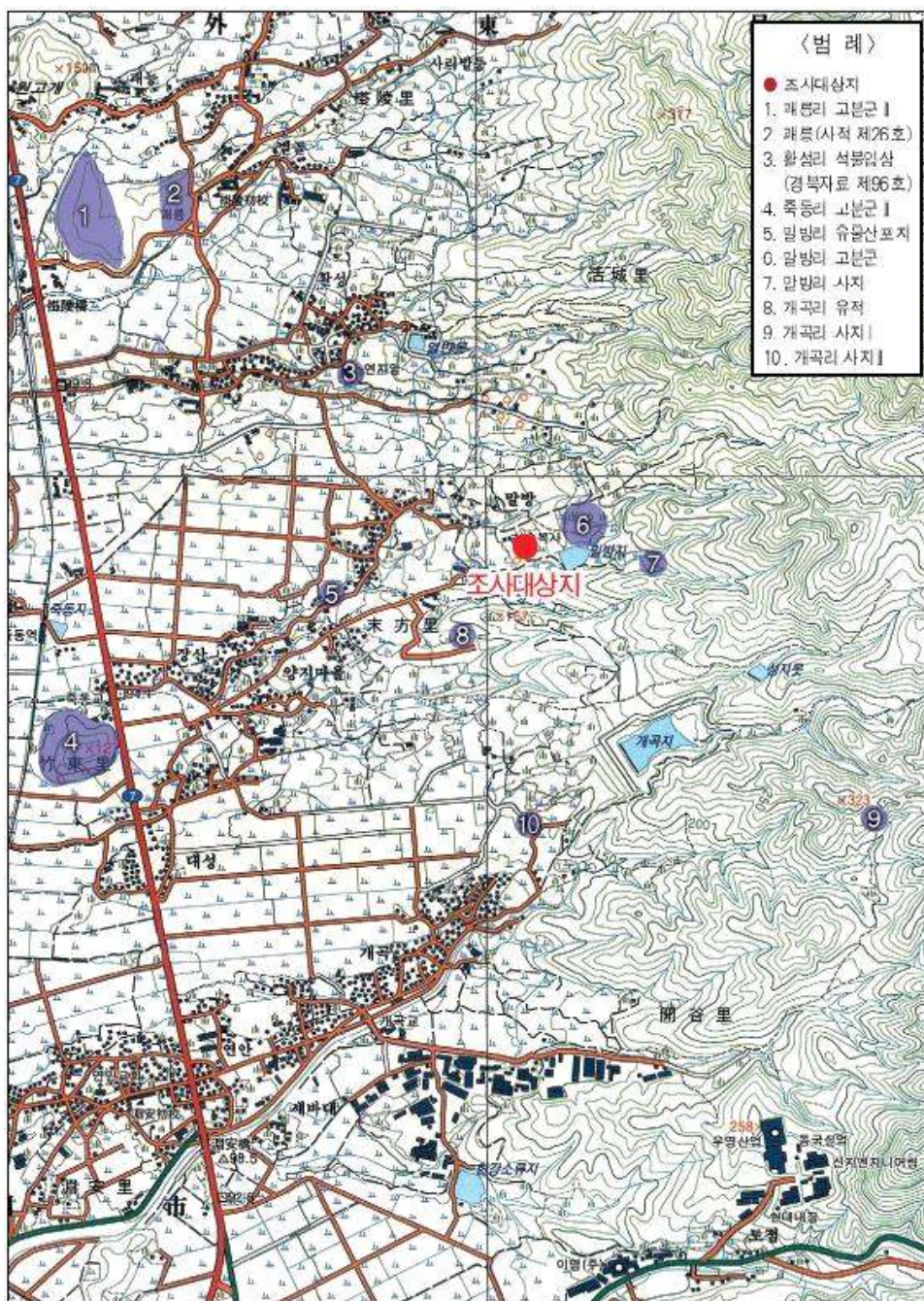
38) 경주시·경주대학교, 위 책, pp.260~284.

39) 김지현, 「경주 鑿藏寺址 史蹟과 삼층석탑에 대한 再考」, 『新羅文化』 4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pp.249~275.

40) 경주시·경주대학교, 『경주지역 폐사지 석조문화재 조사연구』, 경주대학교, 2010, pp.141~158.

4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慶州南山 南里寺址 東·西三層石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

42) 李順英, 「신라석탑의 전개과정에 건립지역과의 관계」, 『文化史學』 43, 한국문화사학회, 2015, p.15.



삽도 1. 충북사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內 遺蹟(1·2次)』 보고서, p.4 인용)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석탑을 건립하는 사찰은 왕경 시가지 외곽에서 주로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³⁾

지금까지 살펴본 경주 일원의 사찰 건립 양상을 정리하면, 먼저 사찰 건립은 도시 확장 과정과 궤적을 같이 하며 시가지 중심에서 점차 외곽으로 건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탑 건립 양상으로 보면, 석탑이 건립되는 사찰들은 경주 시가지 중심보다는 경주 외곽에서 주로 건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주 일원의 사찰 창건과 석탑 건립의 양상 및 흐름을 배경으로 숭복사지의 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숭복사지는 토함산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줄기의 서쪽 기슭의 해발고도 160~170m 지점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숭복사지가 위치한 외동읍 말방리는 경주에서 울산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상에 해당하는데, 숭복사지 남쪽으로는 김유신 등에 의해 호국 성격으로 창건된 원원사지와 관문성⁴⁴⁾ 등이 있다. 입지 상 숭복사지 사역 아래, 즉, 서쪽편으로는 태화강의 지류인 東川이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숭복사지의 입지 를 볼 때, 숭복사는 8세기 중엽 이후 경주 일원에서 사찰 건립이 점차 시가지 외곽으로 확장되어 가는 흐름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통일 전쟁에 집중하던 무렵인 664년, 문무왕은 국인이 함부로 사찰에 재물과 토지를 시주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금지한다.⁴⁵⁾ 이는 佛事에 대해 귀족에 대한 견제와 함께 국가적으로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⁴⁶⁾ 이에 사찰 건립은 점차 경주 일원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김천 갈항사의 경우 동탑의 상층기단 면석의 명문⁴⁷⁾을 통해 경덕왕 17년(758)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갈항사는 원성왕의 외가에 의해 중창된 것으로, 당시까지 앞에서 언급한 문무왕 4년의 佛事 금지 조치가 외형

43) 신라석탑의 전개과정에서 석탑 양식의 성립이 당시 왕경 범위 안이 아니라 왕경의 외곽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신라석탑의 성립과 전개과정에서 건립지역과 위치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순영, 위 논문, p.13.)

44) 關門城은 성덕왕 21년(722년) 왜적의 침입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성되었다. 『三國史記』新羅本紀8 聖德王條, “二十一年 冬 十月 築毛伐郡城 以遮日本賊路”

45) 『三國史記』卷6 文武王 4年條.

46) 金福順, 「文武王의 佛教政策」, 『新羅文化』 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9, pp.5~6.

47) “二塔, 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娒姉妹三人, 業以成在之.” 娒者, 零妙寺言寂法師在旆, 姉者, 照文皇太后君姊在旆, 妹者, 敬信太王姊在也.”(황수영,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적으로 유효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의 정식 승인 없이 불사를 일으키기 위해 왕경의 유력 사찰인 영묘사 승려 언적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건립지역 역시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김천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⁸⁾ 숭복사의 경우는 원성왕릉을 조영하기 위해 곡사를 이건하면서 새로이 창건된 것으로 왕실에 의한 창건이라는 점과 원성왕의 원찰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일으킨 불사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택한 입지를 보면, 물론 원성왕의 원찰 기능을 위해서라는 점도 있지만, 원래 있던 곡사의 위치보다 더 남쪽으로 옮기고 있어 경주 외곽으로 벗어나는 점이라는 점은 당시 사찰 건립 흐름에 따른 입지 선택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석탑 건립 양상 흐름과 함께 살펴보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라에서는 사찰 건립 초기에는 목탑 위주의 건립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는 시가지 중심 및 사천왕사, 망덕사 등 7세기 중엽까지 남산 일원 사찰에서도 보여 지는 현상이다. 왕실에서 주도하여 창건한 감은사는 순수 불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삼한 통일의 위업을 자축하고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적 의미, 호국적인 의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⁴⁹⁾ 새로운 조형물의 창출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주류를 이루던 목탑이 아니라는 참신성과 백제 장인들에 의한 선진적인 석조건축술이 주목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즉, 왕실에서 주도하여 창건된 사찰에서도 석탑을 건립하는 문화는 시가지 보다는 외곽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8세기 중엽 이후가 되어야 경주 외곽 일원 및 남산에서 석탑 건립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인다. 숭복사지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입지 조건 역시 경주 외곽의 토함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주 지역의 석탑 건립 양상과도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숭복사지의 입지는 단순히 원성왕릉의 조영으로 인해 이건되어 창건하였다기 보다는, 당시 신라의 사찰 창건 흐름과 석탑 건립 양상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입지가 선택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8) 朱甫墩, 「『三國遺事』 勝詮髑髏條의 吟味」,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pp.54~56.

49)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pp.201~202.

50) 이순영, 위 논문, p.12.

Ⅲ. 승복사지의 석조유물

1. 동·서 삼층석탑

금당지 전면에 동-서로 석탑 2기가 세워져 있어 쌍탑⁵¹⁾ 가람으로 보인다. 두 탑은 하층 지대석 한번 길이가 각각 동삼층석탑은 2.87m, 서삼층석탑은 2.94m로 거의 동일한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중층기단부와 삼층의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된 전형적인 신라석탑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 결구방식 등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층기단부의 팔부중상 조각 및 1층 탑신의 문비가 조각된 것도 동일하다. 현재 두 석탑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94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동·서 삼층석탑의 양식 특징과 건립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동삼층석탑

동삼층석탑은 방형의 지대석 위에 중층기단을 올렸는데, 하층기단부는 4매의 장대석이 엇물림 결구방식을 보이는데, 한 변은 중앙에 탱주 2주와 양 우주를 모각한 장대석을 놓고, 나머지는 한쪽에 우주가 모각되고 중앙에 탱주 2주가 모각된 장대석을 사용하였다. 하층기단 갑석은 부재가 훼손된 편이나 4매의 판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층기단 갑석 상면은 약간의 물매가 확인되며, 호각형 2단의 상층기단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상층기단은 모두 5매의 판석으로 결구되어 있는데, 동쪽면만 2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층기단과 마찬가지로의 결구방식을 보인다. 중앙에 탱주 1주가 모각되어 있어 상하층기단 탱주 수가 1:2로 고정되어 가던 시대적 양식흐름이 반영되어 있다. 탱주로 분할

51) 쌍탑이란 가람 구성에서 두 기의 탑이 배치된 것을 두고 부르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박흥국은 '사역의 중심건물인 금당 앞에 같은 형태로 동서 혹은 남북으로 나란히 세워진 탑', 또는 '양 탑의 형태와 규모가 같은 탑'으로 정의한 바 있다.(박흥국, 「경주 남산리 3층석탑의 특이점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3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p.147.)

된 각 면에는 좌상의 형태로 팔부중상이 1구씩 조각되어 있다. 팔부중상이 조각되어 있는 기단 면석 한 칸의 폭은 57~58cm로 서삼층석탑과 거의 동일하다. 아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武服으로 전신을 감싸고 있으며, 두광은 없다. 모두 운좌 위에 앉아 있는데 무복이 아닌 아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천의 자락이 위쪽으로 날리는 형태를 보인다. 서쪽 면부터 시계방향으로 천신-가루라, 용-야차, 아수라-건달바, 긴나라-마후라가가 한쌍을 이뤄 배치되어 있다.⁵²⁾(<표 4>) 상층기단 갑석은 4매의 판석이 田자형으로 결구되었으며, 하단에 각형 1단의 부연이 있고, 상면은 수평형으로 각형 2단의 탑신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표 4> 동삼층석탑 상층기단 팔부중상 배치 현황

서		북	
천신(향좌)	가루라(향우)	야차(향좌)	용(향우)
			
남		동	
아수라(향좌)	건달바(향우)	긴나라(향좌)	마후라가(향우)
			

52) 도상의 명칭과 성격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였다.
전정중, 「新羅石塔의 八部衆像에 關한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5~19.
한재원, 앞 논문, 2006, pp.199~217.

탑신부는 각각 1석으로 탑신과 옥개가 구성되었는데, 2층 탑신석만 결실되었다. 탑신에는 모두 우주가 모각되어 있는데 1층 탑신은 4면에 문비가 조각되어 있다. 문비는 4면에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조각하였는데⁵³⁾, 외곽선은 3단으로 점차 안쪽으로 단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다. 문비 내부의 크기는 폭 30cm, 높이 44cm이고, 가장 외곽 둘레는 폭 37.5cm, 높이 50cm이다.⁵⁴⁾ 중앙에 세로로 1줄의 음각선이 새겨져 있어 양쪽 문을 표현하고 있으며, 2개의 원형 문고리가 새겨져 있다. 문고리의 크기는 4cm×6cm이다. 원형 문고리는 짐승머리 형태의 鋪首形 문고리에서 짐승머리가 사라져 단순한 원형(돌을새김)으로 처리되고 중앙부에 둥근 고리를 부착한 형태로 짧은 시기에 경주지역에만 남아 있다. 경주지역에는 창림사지 삼층석탑과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 경주박물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소장 탑신석 등에서만 확인되고 있어⁵⁵⁾ 지역적인 특징으로 여겨진다.

옥개석의 옥개받침은 각형 4단이며, 물끓기 홈이 조성되었다. 옥개석 전각부 모서리 양쪽 끝부분과 그 윗면에 2개씩의 구멍이 남아 있는데 한쪽 모서리마다 6개씩 구성되어 있다. 구멍의 지름은 약 2.5cm이며, 구성 방식으로 보아 매층 옥개석마다 총 24개의 莊嚴孔⁵⁶⁾이 구성되어 있다. 옥개석 모서리에 금속제의 장식을 걸기 위한 흔적으로 생각된다. 옥개석 윗면에도 각형 2단의 탑신받

53) 김은화는 문비의 형식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I 형식은 문형 문비로 내부에 공간이 있으며, 문틀은 별도의 부재들을 사용하여 결구한 형식으로 좌우에 문설주를 세우고 상하에 인방을 둔 형태이다. II 형식은 문틀형 문비로 내부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 단일 또는 이중, 삼중의 물딩으로 문틀을 표현한 형태이다. III 형식은 평면부조형 문비로 문비의 표현이 평면부조라는 방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단계로 물딩에 의한 문틀의 표현과 그 내부에 자물쇠, 문고리 등이 추가로 모각된 형태이다. 이 기준을 따르면 숭복사지 석탑은 III 형식의 평면부조형 문비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은화, 『韓國 塔婆의 門扉 研究』, 『東垣學術論文集』 6,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3.).

54) 실측치는 특별한 인용이 없는 한 필자의 실측치임을 밝힌다.

55) 신용철, 「신라석탑 문비조각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3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pp.112~113.

56) 일반적으로 석탑 옥개석 모서리에 뚫린 구멍은 ‘풍경공’, ‘풍탁공’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석탑 표면을 장식하기 위해 구멍을 뚫은 용례는 옥개석 뿐만 아니라 갑석, 탑신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구멍은 포괄적으로 석탑의 표면에 莊嚴 또는 裝飾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莊嚴孔’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이순영, 「삼척지역 신라 석탑의 양식과 특징」, 『이사부와 동해』 10, 한국이사부학회, 2015, p.120, 각주 12 참조.).

침이 남아 있으며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었으나 3층 옥개석 윗면에 깊이 15cm, 폭 12cm의 구멍이 남아 있는데 찰주공으로 추정된다. 현재 잔존 높이는 약 4.3m로 추정된다.

2) 서삼층석탑

서삼층석탑 역시 방형의 지대석 위에 중층기단을 올렸는데, 각 면에 우주 1주와 중앙에 탕주 2주를 모각한 4매의 장대석을 사용하여 엇물림방식으로 결구하여 동삼층석탑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일부 부재는 결실되어 신재로 보충하였다. 하층기단 갑석은 동탑에 비하면 훼손이 심하지 않은 편인데, 모두 4매의 판석을 田자형으로 결구하였다. 하층기단 갑석 상면은 약간의 물매가 처리되어 비스듬한 경사형으로 호각형 2단의 상층기단 받침이 조출되었는데, 각 형부분은 매우 낮게 처리되었다. 상층기단은 중앙에 탕주 1주를 모각한 4매의 판석을 엇물림 방식으로 결구하였는데 동쪽면은 양 우주와 탕주를 모각한 형태이다. 동탑과 마찬가지로 탕주로 분할된 각 면마다 팔부중상을 2구씩 배치하였는데 팔부중상이 배치된 방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동탑의 팔부중상 배치를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하였을 때 나타나는 방향으로 각 상을 배치하였다. 따라서 서쪽 면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수라-건달바, 천신-가루라, 긴나라-마후라가, 용-야차가 한쌍을 이루고 있다.(<표 5> 참조)

부조상이 새겨진 쌍탑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동일도상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데,⁵⁷⁾ 특히 아수라의 도상 변화가 급격하다. 동탑과 서탑을 비교해보면, 동탑의 아수라는 상부의 올려든 두 손에 해와 달을 잡고 있고 중간 손에는 금강저와 줄을 쥐고 있으며, 나머지 손은 여원인과 선정인을 결하고 있다. 또한 건달바는 사자관을 쓰고 양손은 가슴과 하복부에 놓아 마주하고 있는 손모양이다. 이에 반해 서탑의 경우 동탑의 아수라와 손 모양에서 다소

57) 申龍澈, 「新羅 八部衆 圖像 전개에 있어 雙塔의 역할」,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1호, 2010, p.137.

차이가 보이고, 상부의 두 손에 해와 달을 잡고 있는 점은 동탑과 동일한 양상이나, 중간 손은 합장을 결하고 다른 손에는 금강저와 무기 또는 여원인과 활 등을 쥐고 있어 동탑 아수라의 손모양 보다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아수라와 쌍을 이루는 건달바의 경우 손 모양에서 서탑보다 동탑의 손 간격이 더 적게 벌리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⁵⁸⁾

<표 5> 서삼층석탑 상층기단 팔부중상 배치 현황

서		북	
아수라(향좌)	건달바(향우)	천신(향좌)	가루라(향우)
			
남		동	
야차(향좌)	용(향우)	긴나라(향좌)	마후라가(향우)
			

58) 오세덕, 「雲門寺 東·西 三層石塔에 관한 고찰」, 『新羅文化』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pp.317~318.



삽도 2. 송복사지 동·서 삼층석탑 팔부중상 배치 비교

상층기단 갑석은 2매의 판석을 日자형으로 결구하였는데, 1매는 새로운 부재로 보충하였다. 동삼층석탑의 상층기단 갑석은 4매를 사용하여 결구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나, 동탑과 마찬가지로 하단에 각형 1단의 부연이 있고, 상면은 수평형으로 각형 2단의 탑신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탑신부 구성도 동삼층석탑과 동일하다. 1층 탑신 4면에 새겨진 문비 역시 동탑과 같은 형식으로 조성되었는데, 내부 폭이 29cm, 높이 49cm이고 가장 외곽 둘레 폭은 36.5cm, 높이 54cm로 동탑의 문비 크기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옥개석의 4단 옥개받침, 물끓기 홈, 장엄공 모두 같다. 2층 탑신석이 결실되었으며 3층은 탑신석과 옥개석 모두 결실되었다. 상륜부도 모두 결실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높이는 약 3.2m로 추정된다.

이상 살펴본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의 양식 특징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두 석탑은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중층기단, 삼층탑신 등의 양식도 동일하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결구방식과 부재 구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31년 후지시마가 숭복사지 조사후 동탑과 서탑의 부재를 토대로 두 탑의 복원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하였다⁵⁹⁾(삽도 3). 복원

도에 따른 석탑의 높이는 동탑은 14척 2촌으로 약 4.3m, 서탑은 14척 6촌으로 약 4.4m로 추정하였다. 또한 복원도에 따르면 1층 탑신 상면에 방형의 감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⁰⁾

두 석탑의 상층기단 팔부중상은 동일한 도상이지만 동탑의 팔부중상 방향이 90도 회전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경우가 서탑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쌍탑이지만 동일 도상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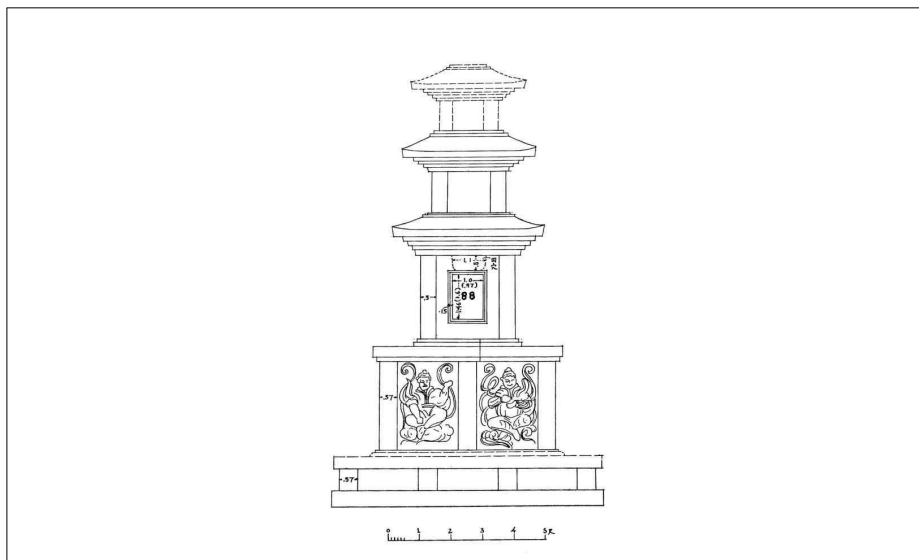
<표 6> 승복사지 동·서삼층석탑 양식 비교

구 분			동삼층석탑	서삼층석탑	비고
지대석			방형 한변길이 2.87m	방형 한변길이 2.94m	
기 단 부	하층	결구방식	저석+면석/갑석, 변형 엇물림식(4매) 갑석 4매	저석+면석/갑석, 엇물림식(4매) 갑석 4매	
		양식특징	탱주2, 우주2 호각형2단 상층기단받침	탱주2, 우주2 호각형2단 상층기단받침	
	상층	면석	변형 엇물림식(5매) 탱주1, 우주2 팔부중상 (한칸 폭 57~58cm)	변형 엇물림식(4매) 탱주1, 우주2 팔부중상 (한칸 폭 57~58cm)	
		갑석	4매 부연 1단, 각형2단 탑신받침	2매 부연 1단, 각형2단 탑신받침	
탑신부		탑신	1층 탑신 4면 문비 각 1석 구성 우주2	1층 탑신 4면 문비 각 1석 구성 우주2	
		옥개	옥개받침 4단, 물끓기흙 有 장엄공 매 층 24개	옥개받침 4단, 물끓기흙 有 장엄공 매 층 24개	
상륜부			결실 (추정 찰주공 有)	결실	

59) 藤島玄治郎, 『建築雜誌』 577號, 1933.

60) 국립문화재연구소, 『日本 東京大學 所藏 韓國建築・考古資料』, 2005, p.94.

현재 남아 있는 부재로 봤을 때, 동탑에 비해 서탑에 사용된 부재의 수가 약간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 역시 동일한 설계도면을 사용하였으나 약간의 변형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용 부재의 차이는 석재의 수급 또는 두 석탑의 제작에 다른 장인 집단이 참여하면서 발생하지 않았을까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삼도 3. 승복사지 석탑 복원도

(국립문화재연구소, 『日本 東京大學 所藏 韓國建築・考古資料』, 2005, p.94.)

팔부중상 조각은 도상적으로 진전되어 도식화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자세도 한쪽 다리를 세우는 9세기의 일반화된 팔부중의 자세가 등장하고 있어 남산동 서삼층석탑 보다는 시기가 하강한 것으로 보인다.⁶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층기단의 팔부중상의 배치 및 조각수법, 1층 문비 형식, 옥개석 장엄공, 석탑 치석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두 석탑은 동일한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동시기에 제작된 쌍탑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상하층기단 탱주수가 1:2로 고정되었고, 귀틀형 결구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판석형 엇물림 결구방식이 정착된

61) 신용철, 「統一新羅 二重基壇石塔의 形式과 編年」, 『東岳美術史學』 9, 동악미술사학회, 2008, p.217.

것으로 보아 9세기 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숭복사 창건 무렵인 9세기 전반으로 생각되며, 경문왕에 의해 중건된 865년, 즉 9세기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쌍신두 귀부

석비의 받침 역할을 하는 귀부는 대부분 1구의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과 달리 2구의 거북이를 一石으로 조성하여 석비 받침으로 조성한 것을 雙頭 龜趺, 또는 雙身頭 龜趺⁶²⁾로 불리고 있는데, 숭복사지 귀부가 이러한 쌍신두 귀부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신라 쌍신두 귀부는 숭복사지 쌍신두 귀부를 비롯하여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 등 현재까지 모두 4기가 알려져 있다.(〈표 7〉) 이들은 경주와 포항 등에 위치하고 있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신라하대에 일시적으로 성행하였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표 7〉 신라 쌍신두 귀부 현황

귀부명	소재지	비 고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	경주시 배동	· 창림사지 삼층석탑 - 상층기단 팔부중상 · 삼층석탑 2기 발굴 - 상층기단 팔부중상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	경주시 암곡동	· 무장사지 삼층석탑 - 상층기단 안상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	포항시 신광면	· 법광사지 삼층석탑 - 초층탑신 굽형괴임대형식
숭복사지 쌍신두 귀부	경주시 외동읍 (현:국립경주박물관)	· 동·서삼층석탑 - 상층기단 팔부중상

62) 이러한 형태의 귀부에 대해 명확히 용어 정리가 된 적은 없는데 엄기표는 귀부를 마련한 것이 비신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碑身은 귀부의 身部가 지탱하고 있으며, 귀부의 조영이 머리뿐만 아니라 龜身을 同一石으로 치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미술사 용어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雙身頭 龜趺”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엄기표의 용어를 따르고자 한다.(엄기표, 「新羅 雙身頭 龜趺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19, 한국문화사학회, 2003, p.98.)

본 절에서는 4기의 신라 쌍신두 귀부의 양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의 양식과 조성시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는 창림사지 삼층석탑이 있는 곳의 능선 아래쪽에 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⁶³⁾ 지대석과 귀부를 一石으로 조성하였는데, 지대석은 앞쪽은 모서리만 둥글게 처리하였고 뒤쪽은 반원형에 가깝도록 호형으로 치석하였다. 지대석 상면에 귀부가 짝 들어차지 않고 약간의 여유가 있다. 귀신은 낮게 표현되었으며 목줄기 아래로 마치 꽃잎처럼 가운데가 들어간 모양의 1단 받침을 두었다. 두 귀부는 앞발은 모두 앞을 향하고 있는데 두 귀부의 맞닿는 좌·우 앞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뒤쪽을 향하도록 살짝 들려 있다. 발가락은 앞발은 5指, 뒷발은 4指의 형태이고 뒷발은 앞쪽을 향하고 있다. 목줄기에는 일정한 너비로 주름문이 반복 표현되었고, 귀두 이상은 모두 훼손되었다.

현재 잘린 귀두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마모가 심한 편이다. 입에 보주를 물고 있으며 보주 앞으로 이빨이 뽀족하게 표현되었다. 눈과 코는 볼륨감이 다소 떨어지지만 사실적으로 치석되었다. 귀부의 후면은 귀갑이 지대석과 맞닿도록 귀신을 덮고 있는데 꼬리부분은 두 귀부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끝 부분을 동그랗게 살짝 말아 올린 형태로 돌출되어 있다. 귀갑은 외곽에 별도의 귀갑대를 마련하지 않고 귀신과 분리되도록 돌을새김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타원형이다. 귀갑문은 1줄의 음각선으로 기본 육각형으로 구획하였는데, 귀갑문의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게 정형화되지 않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귀부 상면 중앙에 조성된 비좌는 완전히 파손된 상태로 흔적만 남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비좌의 비신홈 크기는 폭 89cm, 두

63) 창림사지 일원은 뾰족한 숲을 이루고 있었고, 쌍신두 귀부는 민묘 앞에 놓여 있었으나 2011년부터 창림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을 벌목하고 민묘도 이장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께 20cm이다.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는 지대석의 모서리를 호형으로 하여 장식성을 보이고 발가락이 5指인 점은 통일신라 초기에 건립된 무열왕릉 귀부, 서악리 귀부, 사천왕사지 귀부 등과 친연성을 보인다.⁶⁴⁾ 목줄기 아래의 꽃잎모양과 같은 1단 받침은 사천왕사지 귀부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창림사지 귀부에서 좀 더 두툼하게 꽃잎모양으로 변형되어 형식화 경향을 보인다. 귀갑문은 1줄의 음각선만으로 표현하고 있어 간략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귀갑문의 크기가 정형화되지 않고 오히려 실제 거북이 귀갑문과 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귀두는 이빨이 뾰족하게 표현되는 등 용두화 경향이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용두화된 모습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가 통일신라 초기에 건립된 귀부들보다는 후대의 수법을 보이지만 9세기 중반을 넘어가지는 않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최근 창림사지 삼층석탑이 8세기 중엽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견해⁶⁵⁾와 金生(711~?)이 비문의 書者라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8세기 중엽~8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며, 삼층석탑과 동시기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

鑿藏寺는 원성왕의 부친이었던 大阿干 金孝讓이 明德大王이라고 추봉하여 부른 그의 숙부인 波珍湊을 추모하여 창건한 사찰로, 寺名은 태종이 삼국을 통일한 후 필요 없는 무기와 투구들을 묻어 버린 골짜기에 사찰을 창건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⁶⁶⁾ 무장사지는 토함산의 북쪽 줄기에 해당하는 은참산(恩站山)⁶⁷⁾ 암곡동 자락 골짜기 상에 소재하고 있다. 사지에는 삼층석탑과

64) 엄기표, 앞 논문, p.101.

65) 신용철, 「統一新羅 八部衆像의 考察-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상을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3, pp.137~196.

66) 『三國遺事』 卷3, 塔像 4, 鑿藏寺彌陀殿.

67) 신라시대의 비문인 「平百濟塔」, 「眞鑑禪師碑」, 「鑿藏寺碑」, 「神行禪師碑」와 고려시대의 비문인 「淸平山文修院記」, 「奉先弘慶寺碣記」, 「斷俗寺大鑑國師碑」에 대해 해설하고, 부록으로 비석의 탁본을 뜨는 방법을 설명한 「拓碑秘訣」을 수록한 『羅麗琳瑯攷』는 조선시대 금석학 연구서로서 유일하게 간행된 책이며, 이곳이 은참산임을 밝히고 있다.(李祖默, 「鑿藏寺碑」, 『羅麗琳瑯攷』, 1824.) 그동안 포항 운제산과 경주 토함산을 잇는 '624봉'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쌍신두 귀부가 남아 있다.

쌍신두 귀부는 지대석과 귀부를 1石으로 조성하였고 좌우 대칭형을 이루고 있다. 귀신은 낮게 표현되었고 귀신 앞쪽에 둥근 형태의 낮은 1단 받침이 있다. 앞발 모양은 대칭을 이루며 앞쪽을 향하고 있고 가운데 발은 맞닿아 있다. 발가락은 앞발은 5指이고 뒷발은 4指를 이룬다. 뒷발 역시 앞발과 마찬가지로 대칭을 이루며 가운데 발은 맞닿아 있고 다른 발은 앞쪽을 향하고 있다. 발가락은 길게 꺾인 모양으로 물속을 헤쳐나가는 듯 사실적으로 조각하였다. 꼬리는 귀신에서 돌출되어 귀갑 아래에 표현하였는데, 양쪽 모두 가운데를 향하도록 긴 꼬리를 살짝 아래로 향하게 S자형을 이루고 있다.

목줄기는 둥글게 치석하여 직립한 형태이다. 귀두는 모두 결실되었으나, 2008년 향좌측 귀부의 귀두를 발견하여 현재는 복원해 놓았다. 머리 방향은 살짝 가운데를 향하도록 틀고 있으며, 입 옆으로 갈기가 표현되어 있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듯한 형상이다. 귀갑은 타원형 형태이고 좁은 돌을대 형식으로 귀갑대를 돌려 마련하였으며 귀갑문은 전체적으로 1줄의 음각선으로 긴 육각형 형태를 두르고 그 내부에 다시 육각형으로 장식하여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비좌는 두 귀부 귀갑 상부 중앙에 직사각형 형태로 마련되었는데 비좌 하부 주위로 구름문을 장식하였다. 비좌는 하부에 1단 받침을 두고 전면 4칸, 후면 2칸이 되도록 탕주로 구획하여 그 안에 십이지상을 1구씩 조각하였다. 공간이 좁고 낮아 내부의 십이지상은 좌상에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조각수법도 세밀하지 못하지만 손에 무기를 들고 있다.⁶⁸⁾ 비좌 상부에는 갑석형의 받침을 마련하고 상면에 호각형 2단의 괴임대를 두고 비신흙을 조성하였다.

다른 쌍신두 귀부는 남아 있지 않지만,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는 유일하게 이수부가 남아 있다. 부분적으로 결실이 있지만 전체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비신흙 주변으로는 호각형의 받침부와 연화문으로 장식하였고 하부는 일정한 높이로 구름문을 두르고 그 위에 용문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전후면은 가운데

에 등록되었으나 2008년에 주변이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지구로 편입된 후 무장사에서 창안하여 ‘무장산’으로 등록하였으며, 정상에는 ‘동대봉산 鑿藏峰’ 표지석이 있다.

68) 洪思俊, 「鑿藏寺址 石塔復原에 대하여」, 『考古美術』 34, 고고미술동인회, 1963, p.391.

로 용이 마주보며 앞발과 입으로 보주를 들고 있는 형태이고 그 아래 용신 부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각형의 題額을 마련하였다. 측면 좌우측으로는 각각 1마리의 용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형상이다. 2011년 비신을 새로 복원하고, 2008년 발견한 귀두를 원형대로 보수하였다.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의 특징은 비좌 면석부에 십이지상이 조각되어 있고, 이수부의 운룡문 조각 등을 들 수 있다. 쌍신두 귀부 중 비좌 아래에 구름문이 장식된 것은 숭복사지 쌍신두 귀부와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 2구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구름문은 9세기 중후반경에 건립되는 다른 탑비의 귀부들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시기성을 반영해 준다. 또한 비좌 면석부에 십이지상을 조각한 사례도 다른 귀부의 비좌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십이지상의 외호적 성격과 손에 무기를 쥐고 있는 형상으로 볼 때, 마찬가지로 귀부에 올리는 비신에 대한 수호의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수부는 태종무열왕릉비와 같이 여러 마리의 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용신의 자세가 역동적으로 뒤엉켜 있고, 볼륨감 있게 처리된 점 등은 9세기 중후반 건립되는 탑비의 이수부와도 친연성을 보인다.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와 함께 남아 있는 삼층석탑은 중층기단에 삼층 탑신을 올린 정형기 석탑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상층기단에 우주와 탕주 없이 안상을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9세기 전반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문헌기록 검토 및 기단부 결구수법 및 상대갑석의 치석 수법, 상층기단의 호각형 2단 받침, 상층기단 안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8세기 후반으로 편년⁶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미타불 조상비가 800년에 조성⁷⁰⁾된 것으로 볼 때, 쌍신두 귀부는 조상비가 완성되기 이전에 미리 마련되었거나 늦어도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쌍신두 귀부는 삼층석탑과 함께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늦어도 800년에는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9) 김지현, 「경주 鑿藏寺址 史蹟과 삼층석탑에 대한 再考」, 『新羅文化』 4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pp.249~277.

70) 김지현, 위 논문, p.254.

3)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는 현존하는 쌍신두 귀부 중 유일하게 포항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주까지 직선거리 30km 정도로 가까운 곳으로 경주문화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법광사지에는 쌍신두 귀부를 비롯하여 삼층석탑 1기, 석조대좌, 당간지주 등의 석조물이 남아 있다. 사지 대부분은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포항시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쌍신두 귀부는 사지 북쪽 편에 형성된 언덕 위에 낮은 철조 울타리로 둘러져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남아 있는 쌍신두 귀부 가운데 파손과 마모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었다. 원래는 땅 속에 많이 묻혀 있었는데 1969년 조사시에 흙을 파내어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당시 명문이 없는 비신 파편이 다수 수습되었다고 한다.⁷¹⁾

지대석은 기본 사각형으로 귀부와 1石으로 구성하였는데, 지대석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중간마다 굴곡을 두어 꽃잎모양과 같이 장식을 더하고 있어 다른 귀부에서 보기 드문 수법을 보인다. 지대석 상면으로 귀신을 받치는 1단 받침을 마련하였는데, 가운데를 들어가게 처리하여 꽃잎 모양처럼 처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에서도 확인된다. 귀신은 기본 대칭형을 이루고 있으며 앞발은 중앙에서 맞닿도록 하였다. 뒷발은 양발 모두 앞쪽을 향하고 있으며 발가락은 앞발과 뒷발 모두 5指이다. 목줄기부터 귀두까지 훼손이 많이 되었으나 목줄기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귀두는 모두 결실되었으나, 목줄기 모양으로 보아 직립형으로 전방을 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신 후면에는 귀갑 아래로 꼬리가 일자형으로 대칭되어 각각 좌우측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귀갑은 두껍게 처리되었는데, 외곽부에 1조의 음각선으로 일정한 너비로 돌려 귀갑대를 마련하고 귀갑문은 3줄 이상의 음각선이 반복하여 육각형을 이루고 있다. 귀갑문 내부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다. 비좌는 귀갑 상부 중앙

71) 황수영·문명대, 『法廣寺址實測調査』, 『佛教美術』 1,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3.

에 마련되었는데 하부에 1단 받침을 두고 면석부 전후면에는 안상을 4구씩 조식하였고, 좌우측에는 각각 안상 2구가 조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좌 상면에는 호각형 2단의 괴임대를 두고 비신홈을 마련하였다. 비신홈의 크기는 폭 89cm, 두께 20cm로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와 동일하다. 또한 귀부가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이루면서 지대석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점, 귀갑대를 살짝 들어올린 수법 등은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와 유사하다.

법광사지에는 쌍신두 귀부 외에도 다수의 석조유물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삼층석탑은 「법광사석탑기」 명문을 통해 828년(흥덕왕 3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²⁾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846년에 탑을 移建하여 다시 세웠다⁷³⁾는 것으로 볼 때, 이 사이에 법광사의 중수가 이뤄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는 828년~846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숭복사지 쌍신두 귀부

숭복사지 쌍신두 귀부는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에 옮겨져 있는데⁷⁴⁾, 정면으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전면에 놓여져 있다. 지대석은 방형으로 귀부와 1石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대석의 외곽 모서리까지 귀부가 꼭 차게 조각되어 있다. 귀부는 발가락과 얼굴 부분에 약간의 훼손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다. 두 귀부는 다른 쌍신두 귀부가 대칭형을 이루는 것과 달리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귀부는 발이나 귀두의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귀신은 지대석에서 낮게 표현되었으며, 정면 목줄기 아래에 1단의 받침이 마련되었다. 두 귀부 모두 앞발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72)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76, pp.145~147.

73) 黃壽永, 위 책, pp.151~153.

74) 이 쌍신두 귀부가 옮겨진 시기에 대해 엄기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제 때 숭복사지를 답사하거나 조사한 기록들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1931년에서 1932년 사이에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였다.(엄기표, 위 논문, p.112 각주 43 인용.) 이후 국립경주박물관 유물목록대장을 통해 1930년 10월 박물관에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오른쪽 발은 살짝 들어 올리고 왼쪽 발은 바닥을 짚고 있다. 두 발의 표현을 다르게 하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는 듯한 역동적인 조각수법은 두 귀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뒷발은 모두 앞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꼬리는 두 귀부 모두 바깥쪽으로 말아 올라가는 모습으로 대칭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발가락은 4指이며 목줄기는 일정한 너비로 주름문이 반복되고 있다. 목줄기는 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목의 라인을 따라 치석되어 있고, 중간에는 連珠紋 형식으로 영락장식이 되어 있어 장식화 된 모습을 보인다. 귀두는 직립하여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안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있어 중앙에서 바라보는 자와 시선이 마주치도록 하고 있다. 눈과 입 옆으로 날리는 갈기 표현, 뒤로 넘어간 귀 등 역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일신라 말기에 건립된 다른 탑비의 귀두에 비하면 둔을새김이 다소 약하다.

龜甲은 외곽에 일정한 너비로 귀갑대를 두르고 그 안에 귀갑문을 장식하였다. 귀갑문은 2줄의 음각선으로 이중의 육각형이 반복되고 있는데, 두 귀부가 대칭형을 보인다. 귀갑 등줄기는 화염문과 같이 표현되어 있어 장식적 성격이 강하다. 비좌는 두 귀부 사이의 중앙에 마련되었는데 비좌 주위에 구름문을 둘러쓰며 귀부 사이의 틈까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다. 구름문 위에는 작은 단판의 복련문을 배치하였으며, 높고 낮은 호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비좌 위에는 별석으로 구성된 비신흙대를 올렸는데 전후면 3구, 측면 1구씩 안상을 두고 그 안에 천의를 휘날리며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을 조각하였다. 비신흙대 상면에도 낮고 높은 3단의 비신받침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비신흙대를 따로 마련하는 경우는 다른 귀부와는 다른 특이점이다.

2009년과 2010년에 숭복사비 복원을 위해 입비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래의 입비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면발굴조사 이전에는 비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록에 의해 추정되는 1차 조사지 내에 기초 없이 건립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⁷⁵⁾ 그 결과 2015년 숭복사비의 쌍신두 귀

75) 경주시·(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内 遺蹟(1·2次)』, 2011, p.2.

부와 비신, 이수 등을 새로 복원하였다.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는 9세기 중엽 이후에 건립된 귀부의 귀갑문 장식수법과 통하고 있고⁷⁶⁾ 목줄기의 주름문과 영락장식 등은 장식화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대적 특징이 보이고 있다. 또한 비좌 주위의 역동적이고 볼륨감 있는 구름문 표현 역시 9세기 중후반에 건립된 탐비의 귀부나 이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법이다.⁷⁷⁾ 또한 귀두가龍頭形으로 변화하는 9세기 중반 이후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송복사지 귀부가 탐비와는 다른 목적에 의해 건립되었지만 양식과 수법은 9세기 후반에 건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송복사비문은 최치원이 당에서 귀국한 다음해인 886년 현강왕으로부터 송복사비명을 작성하라는 명을 받아⁷⁸⁾ 896년(진성왕 10)에 가야 완성된다. 따라서 송복사 귀부와 비신은 비문을 새기기 전에 이미 준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886년~896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⁷⁹⁾

지금까지 신라 쌍신두 귀부 4기에 대해 세부 형식과 조성시기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귀부형태는 대체적으로 좌우대칭형을 이루는데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 단계에서 좌우동일형으로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는 목줄기의 영락문 장식, 귀갑대의 화염문 장식 등 다른 쌍신두 귀부들 보다 장식화 경향이 많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9세기 후반에 신라의 다른 탐비와 귀부의 장식화 경향과 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귀두가 용두화되는 단계를 보이고 있어 귀두의 형식이 시기 하강 요소임을 알 수 있다.(<표 8, 9>)

비좌 하부에 구름문 장식과 비좌 면석 측면에 십이지상 또는 천인상 등을

76) 엄기표, 「新羅 塔碑의 樣式과 造型의 意義」, 『文化史學』 14, 한국문화사학회, 2000, p.20.

77) 이호관, 「統一新羅의 龜趺와 螭首」, 『考古美術』 154·155, 한국미술사학회, 1982, p.65.

78) “慶曆景午年春顧謂下臣曰禮不云乎銘者自名也以稱其先祖之德而明著之後世此孝子孝孫之心也先朝締構之初發大誓願金純行與若父肩逸嘗從事於斯矣銘壹稱而上下皆得爾宜譔銘”

崔致遠, 「大崇福寺碑銘并序」,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1992, p.161.

79) 이와는 달리 888년(진성왕 2년) 2월 이후, 즉 그 해를 넘기지 않은 888년 후반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진성왕 3년 이후에는 농민과 초적의 반란으로 비를 세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며, 송복사비가 887년(정강왕 2년)에 세워진 진감선사비와 마찬가지로 최치원이撰하고 직접 글까지 한 碑라는 점도 두 비가 매우 가까운 시기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하였다.(윤선태, 앞 논문, 2000, p.101.)

조각한 경우는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와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와 같은 비좌 형식은 먼저 조성된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한편,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와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는 둥근 모서리의 지대석 형태, 귀신 아래 1단 받침이 가운데가 들어간 모양의 꽃잎형태 등에서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이 두 귀부 사이에서도 영향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쌍신두 귀부 4기 중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와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 사이의 친연성이 확인되며,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와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 사이에서 친연성이 확인되고 있어, 조성주체 내지는 장인집단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쌍신두 귀부가 조성된 사지에 남아 있는 다른 석조물 가운데 석탑의 경우 장엄조식이 부가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창림사지 삼층석탑과 송복사지 삼층석탑은 상층기단부에 팔부중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창림사지의 경우 발굴조사에서 석탑 2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팔부중상이 장엄된 형태이다. 무장사지 삼층석탑은 상층기단부에 커다란 안상을 2구씩 조식하고 있어 장엄조식의 의도가 짙은 것으로 생각된다. 법광사지 삼층석탑은 석탑 표면에 장식이나 장엄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초층탑신받침이 굽형괴임대 형식으로 일반적인 각형2단의 전형양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탑신받침의 변화 역시 탑신 안에 있는 사리 숭앙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쌍신두 귀부가 단신두 귀부에 비해 치석과정이 어렵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양식이라는 점과 어쨌든 단신두 귀부에 비하면 장엄적 측면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쌍신두 귀부가 조성된 사찰은 석조물을 조성할 때 장엄적인 요소를 강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쌍신두 귀부가 조성된 사찰이 당대의 왕이나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라는 점도 이와 관련이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V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조성시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가 8세기 중엽~8세기 후반으로 가장 먼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는 8세기 말,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는 828년~846년에 해당하는 9세기 전반, 마지막으로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는 886년~896년에 해당하는 9세기 후반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는 장식화 경향이 진전되고 귀두가 용두화 되는 등 9세기 후반에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신라 쌍신두 귀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 8> 신라 쌍신두 귀부 세부 형식

구 분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
조성시기		8세기 중엽 ~8세기 후반	8세기 말 (하한 : 800년)	9세기 전반 (828년~846년 사이)	9세기 말 (886년~896년 사이)
지대석		방형/둥근모서리	방형	방형/둥근모서리/ 꽃잎형	방형
귀부형태		좌우대칭형	좌우대칭형	좌우대칭형	좌우동일형
귀부	받침	1단 꽃잎형	1단	1단 꽃잎형	1단
	발	(앞)5指/(뒤)4指 좌우앞발 맞닿음	(앞)5指/(뒤)4指 좌우앞발 맞닿음	(앞)5指/(뒤)5指 좌우앞발 맞닿음	(앞)4指/(뒤)4指 오른쪽 앞발 들
	꼬리 방향	우(동일방향)	좌우(대칭방향)	좌우(대칭방향)	좌우(대칭방향)
	귀갑	육각형 크기 不同	육각형	육각형	정육각형
	목	주름문	주름문	주름문	주름문+연주문
	비좌	-	구름문/십이지상	안상	구름문/천인상
비신		-	2011년 복원	-	2015년 복원
이수		-	有 운룡문	-	-

<표 9> 신라 쌍신두 귀부 비교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 전면과 후면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 전면과 후면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 전면과 후면



승복사지 쌍신두 귀부 전면과 후면

IV. 숭복사지 가람배치

1. 가람배치 분석

1) 가람현황과 발굴조사 성과

숭복사지는 일제강점기 1929년 藤島亥治郎가 사지를 실측하여 복원도를 작성하였으며⁸⁰⁾,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숭복사비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⁸¹⁾

1차 발굴조사는 2008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실작업일수 17일간으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구역은 藤島亥治郎의 기록과 경주고적보존회의 기록, 주변 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1구역(주변 주민의 증언)과 2구역(후지시마의 증언)으로 설정하였다. 1구역은 10m×20m의 규모, 2구역은 20m×5m의 규모이며, 현장조사에서는 1구역에서 장대석을 이용한 기단과 방형초석, 적심 등이, 2구역에서는 수혈이 확인되었다. 장대석으로 구획된 형태가 동회랑에 상응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사된 초석간의 거리는 곧 회랑 주칸의 거리와 폭이 될 것이므로 숭복사지의 회랑을 복원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1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기대했던 입비지점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동회랑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할 수 있었다.

2차 발굴조사는 2010년 9월 6일부터 동년 9월 20일까지 실작업일수 8일간 진행되었다. 1차 발굴조사를 통해 입비지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경주시는 사역 내 원입지점과는 별도의 숭복사비 복원·건립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선정된 부지로 한정하였다. 조사구역은 1차 발굴조사의 2구역 동남모서리에서 서쪽으로 약 7m 지점에 위치하며, 8.9m×8.9m의 규모로 설정되었다. 현장조사에서는 기와무지와 석열이 확인되었는데, 기와무지는 2006년 발굴조

80) 藤島亥治郎, 『韓의 建築文化-나의 研究 六十年-』, 李光魯, 기문당, 1986, pp.301~304.

81) 『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內 遺蹟(1·2次)』, (財)新羅文化遺産研究院, 2011.

사된 탑동 772번지 신라시대 건물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바로 인근에 관련 건물지가 확인될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기와무지의 그 진행방향과 위치로 추정해 볼 때 관련건물지가 남회랑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2차 발굴조사는 송복사지 남회랑지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⁸²⁾

두 차례 발굴조사 성과와 사지에 남아 있는 석조유물 종합해서 가람배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당지는 사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다. 금당지 내에는 방형초석 12개가 잔존하고 있으며, 건물의 주칸 거리는 정칸은 약 3.9m, 협·퇴칸은 각각 2.7m이며, 측면 중앙칸은 약 3.9m, 전·후칸은 각각 2.8m이다. 금당지의 전체는 크기는 동서 약 14.7m, 남북 약 9.6m이다. 기단은 크기는 동서 약 20.3m, 남북 15.2m이다.⁸³⁾

회랑지는 별도의 초석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할 수 없으나 최근 발굴조사에서 중앙에서 동쪽으로 22.8m 떨어진 지점에서 회랑의 초석과 기단석으로 추정되는 석조유구가 확인되어 실체가 드러났다. 동답에서 동쪽으로 12.7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초석은 6기가 확인되었다. 회랑 폭은 약 6.2m이고, 초석 중심간 거리는 정면 3.6m, 측면 3.0m로이고 모두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모든 사지의 회랑이 동·서쪽 동일한 간격에 조성되고 있어 송복사지 서회랑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심축선에서 22.8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정 복원도에서는 동·서회랑의 크기를 남회랑과 연결되는 모서리칸을 포함하여 각각 27칸의 설정하였으며 약 84.8m로 복원하였다.⁸⁴⁾

강당지는 일반적인 통일신라시대 사지와 동일하게 금당지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찰 및 민가가 들어서 있는 상태로 현재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1929년 藤島亥治郎는 정면 24m 8칸, 측면 12m 4칸 구조를 복원하였

82) 위 보고서, 2011, pp.12~36.

83) 위 보고서, 2011, p.51.

84) 위 보고서, 2011,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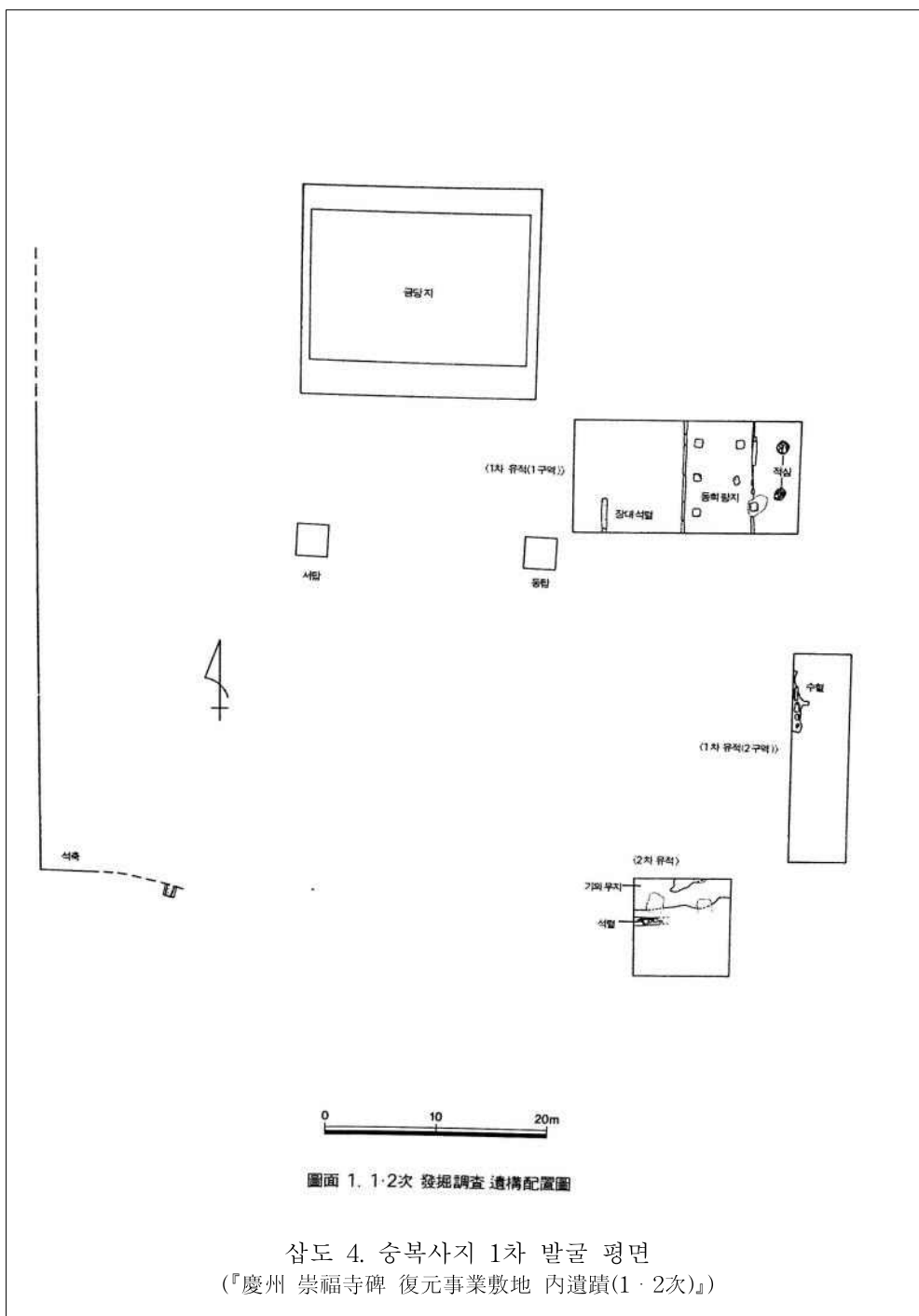
다.⁸⁵⁾ 이에 비해 신라조사단에서는 정면은 동일한 8칸 구조이지만 측면을 3칸 구조를 복원하고 있다.⁸⁶⁾ 중문지는 가람 남북 중심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면 정면 12m 3칸, 측면 7.5m 3칸 구조로 추정하고 있다. 동·서탑지는 금당지 앞에 건립된 쌍탑지로 두 석탑의 거리는 20.1m이며 석탑 하층 지대석 크기는 각각 2.94m이다. 각 건물지의 크기 및 칸수 거리는 다음 <표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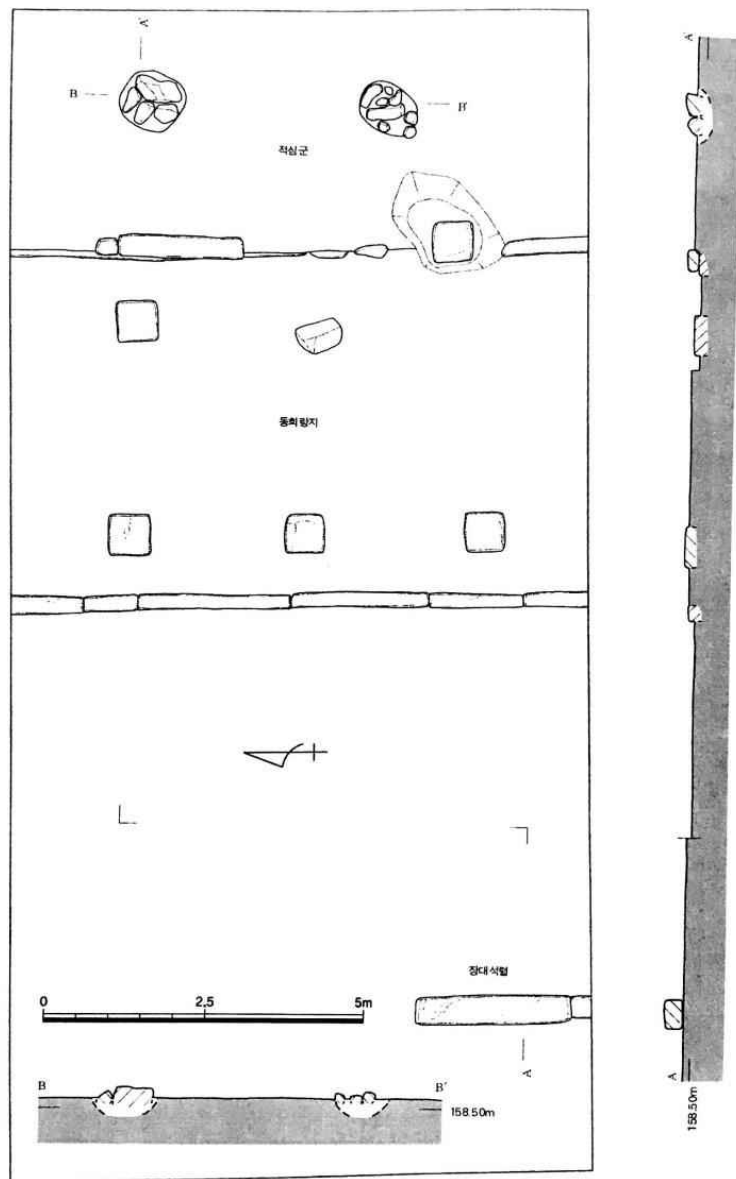
<표 10> 숭복사지 건물지 평면

건물명	주 칸		비고(주칸크기)
	칸/정면(m)	칸/측면(m)	
강당	8칸(24.0)	4칸(12.0)	-
기단	29.6	17.6	-
금당	5칸(14.7)	3칸(9.6)	정면 2.7-2.7-3.9-2.7-2.7 측면 2.8-3.9-2.8
기단	20.3	15.2	-
탑	2.94	2.94	-
중문	3칸(12.0)	2칸(7.5)	-
건물간 거리 (m)	중문-탑	탑-금당	-
	25.0	20.7	-
	동탑-서탑	동회랑-서회랑	-
	20.1	51.8	-
	금당-강당	남회랑 - 강당	-
	32.9	78.6	-

85) 藤島玄治郎, 『朝鮮の建築文化』, 亞細亞文化社, 1929. p.50.

86) 앞 보고서, 2011, p.51.





圖面 2. 1次遺蹟 內 1區域 遺構配置圖

삽도 5. 숭복사지 동쪽 회랑지 발굴 평면
(『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內 遺蹟(1 2次)』)

2) 주요 유구의 분석

송복사지는 2차례의 발굴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역 전체에 대한 전면 발굴이 아닌 관계로 사역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송복사지에 남아 있는 주요 유구는 자연석기단, 발굴조사를 통해 일부 확인된 회랑지, 금당지, 탑지 등이다. 송복사지의 가람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구들에 대해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1) 자연석 기단

송복사지는 토한산의 남쪽 산록에 입지하고 있어 東高西低 자연지형의 영향을 받는다. 사지는 동고서저 자연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역 전체의 수평을 맞추는 대규모 석단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사역의 남서쪽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70~80cm정도의 자연석을 이용해서 하층에 쌓고 상층은 하층보다 작은 자연석을 4단 정도까지 쌓아 올린 자연석기단이 있다. 남쪽 기단과 서쪽의 기단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다른 기단의 자연석보다 큰 크기의 자연석으로 마감하고 있어 초창기의 모습을 간직한 것으로 추정된다.(〈삽도6〉)

신라의 사찰은 통일기 이전까지 주로 서라벌의 중심 시가지에 조성되어 자연지형을 깎는 작업이 시행되지 않고, 황룡사처럼 무른 땅을 단단하게 강화하기 위한 판축작업이 시행된다.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점부터 평지에서 산지로 사찰이 이동하는데 이때부터 신라의 사찰건축에서 본격적으로 자연지형에 대석단을 쌓아 삭평과 복토 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지형의 레벨 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시작된다.⁸⁷⁾ 이러한 신라 산지사찰의 대석단 기초공사 흔적이 바로 송복사지 남서측면의 자연석기단으로 남게 된 것이다.

신라의 사찰 중 최초의 자연석을 이용한 대규모 기단조성이 이루어진 곳은 토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불국사이며, 이후 송복사지를 거쳐 원원사지까

87) 오세덕, 「八空山 桐華寺의 창건시기와 伽藍의 변화과정 고찰」, 『佛敎學報』 79, 불교학회, 2017, p.164.

지 확인된다. 이러한 자연석기단 정지작업 사찰은 신라 외곽지역에서 창건된 원주 거둔사지와 대구 동화사, 부인사 등에서도 그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신라의 산지가람에서 보편적인 기단조성 방식으로 추정된다.



삼도 6. 숭복사지 자연석 기단
(『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内 遺蹟(1·2次)』)



삼도 7. 불국사 자연석 기단



삼도 8. 원원사지 자연석 기단
(能勢丑三 유리건판 사진)



삼도 9. 동화사 금당암 대석단
(朝鮮古蹟圖譜)

숭복사지의 자연석기단은 사역의 동고서저형 지형을 극복하고 전체적인 지형의 레벨 높이를 맞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신라시대의 토목공사 흔적이며, 남서쪽 기단의 끝단에 남아 있는 石漏槽는 이 기단이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는 유물이다. 고대부터 산지에 입지한 사찰은 배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사찰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 고대 산지사찰의 배수시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곳은 주로 고려시대 산지에 조성된 해음원지나 회암사지에 잘 남아 있다. 고려시대 산지 사찰의 배수체계 완비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기원이 유래되고 있는데 바로 숭복사지 남쪽 끝단에 남아 있는 석누조

가 신라 산지사찰의 배수체계를 설명해 주는 유구이다. 송복사지 사역 내부는 전면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배수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지만 사역 내부의 빗물이 모여 이 석누조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다. 송복사지 석누조는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불국사, 원원사지, 합천 영암사지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신라 사찰가람의 중요한 배수유구 중 하나로 추정된다.⁸⁸⁾

송복사지의 자연석기단은 자연석을 서로 이를 맞춰 가면서 쌓은 수법이나 석누조를 조성하여 외각으로 사역 내부의 빗물을 빼내는 배수체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창건기에 조성된 유구로 추정해 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2) 회랑지

송복사지 1·2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유구로 동탑에서 동쪽으로 12.7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된 유구는 추정 동쪽 회랑지로 동,서쪽의 기단과 그 사이에 있는 초석 6기가 확인되었다.

회랑지의 서쪽 기단은 6렬의 장대석이 1단으로 확인되었는데 장대석의 크기는 각 114cm, 164cm, 240cm, 264cm, 92cm, 122cm, 폭은 24cm 내외로 정연하게 가공되어 있다. 동편 기단은 총 4매의 장대석이 확인되었다. 동편 기단의 일부는 2단으로 확인되었는데, 2단의 장대석은 1매 뿐이다. 1단 장대석의 길이는 150cm, 242cm, 264cm 가량이며, 폭은 서편과 동일하게 24cm이다. 2단의 장대석의 길이는 214cm이고 폭은 38cm로 1단의 장대석 기단에 비해 그 규모가 크다. 초석은 총 6기가 확인되었는데, 재질은 화강암으로 주좌 없는 방형의 형태이다. 동편 2매 초석은 교란을 인해 재위치를 이탈했다. 초석의 크기는 길이 70cm 내외이고, 하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교란된 초석을 통해 확인된 두께는 38cm정도이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동회랑지의 초석 중심간의 거리는 남북 303cm, 동서 366cm가량이다.⁸⁹⁾

88) 오세덕, 「遠願寺址 석조물의 조성시기와 가람배치 변화 추정」, 『新羅史學報』 35, 新羅史學會, 2015, pp.157~158.

89) 위의 보고서, 2011, p.17.

신라시대 사찰의 회랑은 경주지역에서 발굴된 모든 사지에서 등장하고 있어 신라사찰의 기본 요소이다. 송복사지 역시 일반적인 신라 사찰처럼 사역 사방으로 회랑이 둘러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연구에서도 발굴성과를 분석하여 동·서 회랑이 각각 27칸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⁹⁰⁾ 경주 주변지역에서 발굴된 쌍탑 가람인 사천왕사지의 회랑 간격은 정면 2.6m, 측면 3.0m이고 천군동사지 회랑은 정면 2.91m, 측면 2.67m, 감은사지 회랑은 정면 2.9m, 측면 2.9m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어, 송복사지 동·서 회랑의 크기 및 간격은 타당성이 높다. 다만 서쪽의 회랑지는 현재 발굴을 통해서 그 전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서쪽 끝단에 조성된 자연석 석단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석단이 서쪽 회랑지의 끝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복사지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불국사 극락전 영역의 서쪽 회랑 끝단 역시 자연석 석단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그 석단 밖으로 회랑의 처마가 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송복사지 역시 서쪽 회랑의 끝단이 현재 대석단이 남아있는 사역의 서쪽 끝단일 가능성이 높다.(〈삽도 10, 11〉)



삽도 10. 송복사지 서쪽 사역 끝단



삽도 11. 불국사 극락전 영역 회랑 끝단

송복사지 회랑의 건립시기는 대체로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쌍탑 가람 회랑의 크기와 동일한 규모이고 회랑 내부로 초석을 배열하고 외단으로 장대석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송복사지의 초창기부터 조성된 회랑지로 여겨진다.

90) 위의 보고서, 2011, p.51.

(3) 금당지

송복사지에서 잔존상태가 가장 좋은 유구이다. 쌍탑의 북쪽에 위치하고 50cm 토단위에 마련되어 있어 하부 기단의 상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1932년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현장답사에서는 잔존 석조유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중기단으로 추정하고 있다.⁹¹⁾ 금당 내에는 12개의 방형초석이 있고 이 초석의 남겨진 위치를 고려해 볼 때 건물의 전체 규모를 정면 5칸, 측면 3칸 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석의 간격은 정칸이 약 3.9m로 가장 넓고, 협·퇴칸은 각각 2.7m이다. 측면 중앙칸은 약 3.9m, 전·후칸은 각각 2.8m이며, 금당지의 전체는 크기는 동서 약 14.7m, 남북 약 9.6m로 측면으로 세장한 편이다.(삽도 12, 13)

통일신라시대 경주지역에서 조성된 쌍탑 사찰 중에서 금당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찰은 감은사지, 망덕사지, 사천왕사지, 천군동사지, 보문사지, 불국사, 원원사지, 인룡사지 정도이다.⁹²⁾ 이 중에서도 송복사처럼 산지에 입지하고, 쌍탑의 재료가 석조인 사찰은 감은사지, 불국사, 원원사지, 인룡사지 정도로 그 숫자가 더욱더 줄어든다. 이들 사찰의 금당지 규모는 감은사지 139.5m², 불국사 216m², 인룡사지 303m² 정도이며, 송복사지 금당이 141m²로 감은사지 금당의 크기와 비슷하다.

금당지 내부에 남겨진 초석 12개는 모두 방형 형태로 일반적인 신라사찰의 금당 초석의 이중주좌를 갖춘 원형 형태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형초석은 통일신라시대 사지의 금당이 아닌 삼국시대 고구려의 청암리사지 중금당, 백제의 군수리사지, 신라의 황룡사지 중금당, 서금당, 미륵사지 중금당, 동금당, 서금당에서 사용되고 있어 고식적 요소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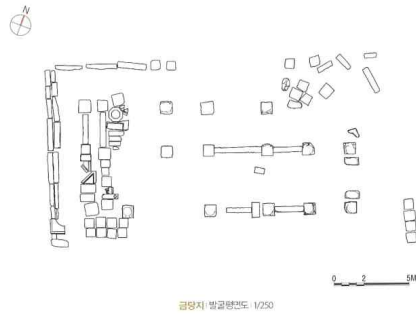
91) 藤島亥治郎, 『韓의 建築文化-나의 研究 六十年-』, 李光魯, 기문당, 1986, p.304.

92)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258.

93) 『동아사아 고대사지 비교연구(Ⅱ)-금당지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288.



삽도 12. 승복사지 금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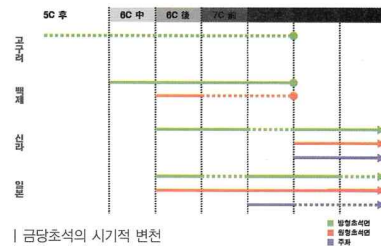


삽도 13. 승복사지 금당 평면도
(한국 고대건축의 기단)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경주지역에서 8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원사지와 보문동 사지에서도 방형의 금당 초석이 확인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 사찰의 금당 주류 초석 형태는 아니지만 승복사지 같은 방형의 초석도 원형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삽도 14, 15>)



삽도 14. 승복사지 금당 방형초석



삽도 15. 금당초석의 시기적 변천과정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금당지편)

금당지 내부의 초석은 중앙칸에 가장 잘 남아 있는데 전열의 초석과 후열의 초석 배열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전열은 각 칸 초석을 좌·우에 놓고 하방석으로 이어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한 반면, 후열의 초석은 칸과 칸 사이에 초석 1기를 놓고 그 사이에 하방석을 놓아 연결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초석 배열의 차이는 건물의 내진 벽체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당이 측면

3칸 규모이고 전칸과 후칸의 공간이 넓지 않아 내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구조로 추정할 수 있으나, 남아 있는 중앙칸 초석열과 하방석은 금당 내부의 내진벽체가 조성된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뿐만 아니라 전열은 중앙 3칸은 각 칸마다 기둥과 기둥을 세우고 수장재를 설치한 반면 후면은 각 칸을 연결하여 벽체로 마감한 형식으로 전열로 진입하여 후불벽 앞에 놓인 불단이나 불상에 게 예불을 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삽도 15〉)

〈표 11〉 신라 사찰의 금당 계단 수

사찰(지)명	계단유형 ⁹⁴⁾	조성기법	칸수
감은사지 금당	전후좌우 1개소	사감석+기단면석+지대석 결합 가구식	정면 3칸 × 측면 3칸
사천왕사지 금당	전·후 2개소, 좌우 1개소	사감석+기단면석+지대석 결합 가구식	정면 5칸 × 측면 3칸
천군동사지 금당	전·후 1개소	사감석+기단면석+지대석 결합 가구식	정면 5칸 × 측면 5칸
불국사 금당	전후좌우 1개소	사감석+기단면석+지대석 소맷돌 1장에 모두 표현	정면 5칸 × 측면 5칸
송복사지 금당	전후좌우 1개소	사감석+기단면석+지대석 소맷돌 1장에 모두 표현	정면 5칸 × 측면 3칸

송복사지 금당의 계단은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금당지 내부에 남아있는 석조물 중에서 계단 소맷돌로 추정되는 부재 3기가 남아 있어, 금당에 계단을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신라 사찰의 모든 전각은 계단을 따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금당 같은 중요한 건물의 경우 사방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송복사지와 동일한 쌍탑형 사찰인 감은사지 금당, 사천왕사지 금당, 천군동사지 금당, 불국사 금당(대웅전) 등에서 모두 계단을

94) 금당의 계단을 위치 및 개수에 따라서 전면 1개소 설치, 전후면 2개소 설치, 전후좌우 4개소 설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동아사아 고대사지 비교연구(Ⅱ)-금당지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p.263~265.)

놓아 사용 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쌍탑 사찰의 금당 계단의 설치방법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각석과 기단면석, 소맷돌을 모두 별석으로 가공하여 조립하는 방식과 사각석과 기단면석, 소맷돌을 모두 1매의 돌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감은사지와 사천왕사지, 천군동 사지에서 사용되고 있어 그 사용 시기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숭복사지를 포함한 불국사 금당에서 사용되고 있어 그 건립시기도 조금 더 늦게 나타나고 있다. 계단의 세부 부재를 모두 1매로 조성한 사례가 나타나는 사찰은 부석사 금당, 구인사 금당지 출토 계단 소맷돌, 통도사 영산전 계단 소맷돌 등이 있다.

이상을 통해 확인한 숭복사지 금당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 형식이며 불전 내부에 중앙 3칸에 내진벽체가 가설되어 있는 구조로 추정된다. 금당의 외형은 가구식 2층 기단이며, 사방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출입할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계단의 소맷돌은 사각석, 기단면석, 지대석을 모두 1매로 모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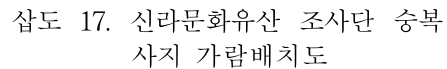
2. 가람배치 특징

1) 기존 가람배치도 분석

숭복사지의 가람배치도는 1932년 일본인 학자 후지시마 가이지로가 최초로 작성했으며, 2009년과 2010년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부 유구를 중심으로 추정한 배치도가 있다. 전자의 경우 당시 현장답사에서 노출된 초석 및 석조 유물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후자의 경우 후지시마의 도면을 참조하여 2009~2010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동쪽 회랑지와 추정 남쪽 회랑지 등의 위치 비정을 추가하여 작성한 도면이다.(<삽도 16, 17>)

1932년 작성된 후지시마의 도면은 금당지와 쌍탑지는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중문과 강당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생략한 채 중심사역인 금당에서부터

삽도 16. 일제강점기 후지시마 가이지로 도면(한의 건축문화)



- 50 -

함께 쌍탑 등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2011년 도면에서는 남쪽 회랑지가 노출되지 않았는데 남쪽 회랑지를 추정하여 그 중심으로 중문을 설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 비정에 다소 의문이 든다. 최소 현재 사역에 남아 있는 석조유물과 그리고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1932년 답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현재 보다 발전된 형태의 가람배치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숭복사지 가람배치 특징

현재까지 알려진 신라의 사지는 200개소로⁹⁵⁾, 이중 발굴조사를 통해서 사역의 모습이 확인된 곳은 황룡사지, 분황사, 사천왕사지, 인룡사지, 감은사지, 창림사지, 천관사지, 불국사 등이다. 신라의 발굴된 사지 중에서 숭복사지처럼 산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쌍탑을 조영한 사찰로는 감은사지, 불국사, 인룡사지, 창림사지 등이 있다. 이에 신라의 쌍탑 사찰과 비교를 통해서 숭복사지에 더 필요한 가람의 구성요소를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숭복사지 가람배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신라 쌍탑 가람의 출현은 통일기를 전후한 시점에 조영된 사천왕사지가 시원이다.⁹⁶⁾ 이후 감은사지에서는 기존 목탑이 아닌 새로운 재료인 돌을 이용한 쌍탑이 처음 등장한다.⁹⁷⁾ 감은사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는 경주 외곽의 대부분 사찰은 돌을 이용한 쌍탑의 조영이 대세를 이루고 그 석탑의 세부형식 역시 불국사 대웅전의 석가탑과 다보탑을 기점으로 이형적 요소 및 석탑 표면의 장엄적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신라 석탑의 표면 장엄적 요소가 등장하는 석탑의 가장 이른 사례로는 고선사지 삼층석탑의 문비장식을 들 수 있고 이후 문비, 인왕상, 신장상, 팔부중, 사방불, 12지신상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상들이 탑 표면의 장엄적 요소로 조각된다. 숭복사지 쌍탑 역시 상층기단 4면에 팔부

95)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7, 2006. p.187.

96)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6, pp.157~160.

97) 張忠植, 『新羅石塔研究』, 一志社, 1987, pp.113~119.

중상이 조각되어 있어, 인용사지 쌍탑, 창림사지 쌍탑과 더불어 경주 지역의 대표적인 신라 팔부중 탑이다.

신라 사지의 조영에서 황룡사지 같은 단탑에서 쌍탑 가람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대체로 사천왕사가 조영되는 시기이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주 시가지가 아닌 외곽으로 사찰이 전파되기 시작한다. 신라 사찰의 외곽 전파가 곧 쌍탑 가람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쌍탑 가람의 조영은 평지에서 산지로 사찰의 입지에도 변화를 야기하는데 최초 쌍탑가람인 사천왕사지와 감은사지가 모두 왕경의 평지 사찰과 다른 산지에 입지한다.

통일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쌍탑 가람은 사천왕사지부터 시작되고, 평지사찰에서 등장하는 앗는 새로운 가람의 요소가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바로 비전의 건립이다. 사천왕사지에는 귀부가 2기 남아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사적비이고, 다른 하나는 사천왕사지를 창건한 문무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석 주변으로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비전지가 확인되고 있어, 기존 신라의 평지가람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고 있다. 숭복사지 역시 발굴조사를 통해서 귀부전지의 원위치를 찾지 못했으나 숭복사지 출토 쌍귀부가 경주박물관에 남아 있어, 귀부전지가 숭복사지의 별도 영역에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삽도 18〉) 이러한 귀부전은 향후 고선사지와 창림사지, 무장사지, 포항 법광사지 등에서 차례로 등장하고 있어 통일기 이후 사지의 새로운 특징으로 간주할 만하다.

사천왕사지에서는 평지사찰과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요소가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바로 비전지 앞쪽에 건립된 누교의 흔적이다.(〈삽도 19〉) 신라 시대 사찰로 진입하는 방식은 대체로 중문을 지나 금당으로 진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누교를 통해서 금당영역으로 진입하는 방식은 불국사에서만 확인되는 특수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천왕사지 누교의 출현은 비교적 낮은 지형의 사찰 진입도 누교를 설치하여, 의도적으로 누교 지나 금당영역으로 진입시키고 있다는 뜻일 될 것이다. 이러한 누교 교각의 흔적은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석조유물 전시실에 10여개 이상 남아 있어, 사천왕사지를 비롯한 많

은 사찰에서 누교를 통한 사찰의 진입이 시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높은 석단이 조성되는 산지가람의 경우 불국사처럼 거창한 누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교를 지나 금당영역으로 진입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삼도 18. 사천왕사지 귀부전지



삼도 19. 사천왕사지 누교

송복사지의 경우도 1932년 후지시마의 방문 때 ‘길 왼쪽에 3단의 돌담이 뻗어 있다. 특히 상단으로 돌담은 서남방으로 높이 3m, 큰 돌이 호화롭게 쌓아 올리고, 가람 대지의 남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쌓아가고 있다. 그 서쪽에 중단·하단의 대지가 있다.’⁹⁸⁾라는 현장 설명이 있어 현재 보다 일제강점기 때 사지의 층단이 명확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송복사지도 불국사처럼 자연석 기단 축대가 있고, 하단과 상단의 높이 차이가 3m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계단시설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계단의 모습은 아마도 사천왕사지나 불국사처럼 누교를 중간에 뚫고 진입하는 형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현재 송복사지 남쪽의 축대 하단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이 축대 상부쪽 지금의 석누조가 있는 선상 높이에 고대의 누교와 중문지가 돌출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송복사지의 가람배치도 상에 추가해야 할 내용을

98) 藤島亥治郎, 『韓의 建築文化-나의 研究 六十年-』, 李光魯, 기문당, 1986, p.304.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선 귀부전지가 현재 숭복사지 가람 내가 아닌 별도의 구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람의 진입부가 단순하게 평지형 중문 형태가 아닌 불국사 자하문처럼 높이 3m 이상의 층계를 밟고 진입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3m의 계단 중간에 불국사나 사천왕사지 같은 누교가 가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V. 송복사지 가람배치와 석조유물의 의의

1. 송복사지의 건축사적 의의

송복사지는 토함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찰로 신라 수도인 서라벌에서 울산만으로 이동하는 관문에 있다. 송복사지가 갖는 불교건축사적 의의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신라 사찰은 통일기를 기점으로 입지환경이 평지에서 산지로 이동하고, 사찰의 중심영역은 1기의 탑을 조성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2기를 조성하는 쌍탑 방식으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신라사찰이 평지에서 산지로 이동할 때 대규모의 대석단 조성공사를 통해 넓은 부지를 확보한다. 이러한 대규모 석단 조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석단의 하층에 자연석을 쌓고 그 위로 면석과 장대석을 가공해서 한단 더 올려 자연석+가공석을 혼합해서 조성하는 불국사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송복사지에서 사용된 것처럼 자연석을 이용해서 석단을 높게 조성하는 자연석쌓기 방식이다. 불국사의 석단조성 방식은 이후 자연석이 모두 사라지고 가공석을 이용해서 석단을 조성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어 합천 영암사지와 구례 화엄사의 석단으로 계승된다. 송복사지 방식은 불국사 석단조성 방식보다 더 넓게 확산하여 대구 팔공산 일원에 조성된 동화사와 부인사의 석단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주의 거둔사지 석단 등으로 사용된다.⁹⁹⁾ 즉 송복사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연석 대석단 조성방식 이후 신라 산지사찰의 전형적인 석단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자연석 대석단은 송복사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둘째는 송복사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연석 대석단이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변의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많은 물을 사찰 밖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산지사찰이 경내에서 어떠한 배수체계를 통해 많은 물을 사찰 밖으로 내보냈는지 그 구체적인

99) 오세덕, 앞의 논문, 2017, p.164.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축대 앞쪽의 석누조를 통해서 사찰 밖으로 많은 물이 빠져나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사찰 배수체계의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송복사지에 남아 있는 석누조인 것이다. 석누조는 송복사지를 포함한 토함산 일원에 함께 조성된 불국사와 원원사지에 확인되고 있어 신라 산지사찰의 공통적인 배수시설물로 볼 수 있다. 신라 사찰이 평지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배수체계가 아닌 산지사찰에 적합한 배수체계로의 변신이 불국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송복사지와 원원사지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이후 이러한 석누조를 통한 배수체계는 신라 외곽의 산지사찰로 전파된다.(<삽도 20, 21, 22>)



삽도 20. 불국사 석누조



삽도 21. 송복사 석누조



삽도 22. 원원사 석누조

셋째, 송복사지는 그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가람 내에서 귀부전지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난 창림사지처럼 중심가람 영역이 아닌 별도의 영역에 귀부전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만약 송복사지도 창림사지처럼 별도의 귀부전지가 건립되었다면 그동안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찰의 중심영역이 아닌 별도의 별원 조성시기를 기존의 구산선문의 개창과 함께 등장한다는 견해보다 송복사지와 창림사지가 개창되는 시기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찰의 중심영역이 아닌 별원을 두고 귀부 및 부도를 봉안하던 방식 역시 구산선문의 고유한 선문가람의 특징이 아닌 이미 신라 수도 서라벌의 산지사찰에서부터 발생하여 신라 외곽의 구산선문 사찰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송복사지 별원의 귀부전지 성립은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부속별원의 출현 시기를 토함산 일원의 산지사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

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숭복사지는 서라벌의 외곽에 조성되는 산지가람 사찰이지만 평지 가람과 같은 남-북 자오선을 중심으로 가람 주축선을 구성하고 있다. 신라는 불교의 유입 이후 흥륜사를 시작으로 영흥사, 황룡사, 기림사, 실제사, 영묘사, 남향사, 분황사¹⁰⁰⁾ 등의 평지사찰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남-북 자오선을 중심으로 가람의 주축선이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평지가람의 주축선 구성이 산지에 입지하는 숭복사지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쳐 사찰이 입지하는 토함산 자락의 지형이 동고서저형으로 가람구성이 동-서축으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의 토목사업을 통해 남쪽으로 대석단을 조성하고 의도적으로 평지가람의 가람 주축선 그대로 따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숭복사지는 산지에 입지하지만 평지가람의 가람체계인 중문, 탑, 금당, 강당을 남-북 자오선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토함산 일원에 함께 조성된 불국사와 원원사지에 함께 조성되고 있어 동일한 성격의 사찰로 간주할 만하다.(<표 12>)

<표 12> 토함산 일원 사찰의 건축적 특징

구 분	불국사	숭복사지	원원사지
진입축	남→북	남→북	남→북
기단	자연석+가공석	자연석	자연석
진입방식	누교계단	누교계단	누교계단
조탑	쌍탑(전형+이형)	쌍탑(팔부중)	쌍탑(12지+사천왕)
배수	석누조(가공석)	석누조(자연석)	석누조(자연석)

100) 이근직,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 『東岳美術史學』 11, 동악미술사학회, 2010, p.107.

다섯째, 쌍탑 구성의 다양성 측면이다. 숭복사지를 포함한 토함산 일원에 조성된 불국사와 원원사지는 모두 중심영역에 쌍탑을 구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찰마다 쌍탑의 구성방식이 다르다. 불국사의 경우 신라 석탑 중에서 유일무이한 쌍탑 구성을 보이는데 전형석탑인 석가탑과 이형석탑인 다보탑이 쌍탑으로 구성되었다. 원원사지의 석탑은 하층기단에 12지신상과 1층 탑신에 사천왕상이 조성되는 독창적인 도상이 출현하는 쌍탑이다. 숭복사지는 상층 기단부에 팔부중이 조각되었으며, 1층 탑신에는 문비가 조각된 쌍탑이 건립되어 있다. 이처럼 불국사, 원원사지, 숭복사지의 쌍탑 조성은 토함산 일원 사찰에 건립된 쌍탑이 형식과 도상이 매우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숭복사지 석탑을 통해 토함산 일원에 조성된 쌍탑의 다양성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2. 석조유물의 미술사적 의의

신라에서 쌍탑으로 건립되는 불탑은 목탑과 석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쌍탑으로 조성된 목탑은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보문사지 등이 발굴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석탑은 감은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후 천군동사지, 장항리사지, 원원사지 등에서 건립된다. 8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경주를 벗어나 김천 갈항사지, 봉화 서동리사지, 청도 장연사지, 산청 단속사지, 순천 선암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건립된다. 이처럼 쌍탑이 9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볼 때, 쌍탑으로 석탑을 조성하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조탑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의 양식 특징과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자세히 검토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숭복사지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쌍탑 중에서 기단부에 팔부중상이 장엄된 예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람 조성에서 쌍탑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데, 크게 건물 배치와 공간에 대한 것¹⁰¹⁾과 교리적 배경을 검토한

것이 대부분을 이룬다.¹⁰²⁾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쌍탑이 조성된 배경에 대한 정설은 없다. 다만 최근 연구성으로 보아 그동안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을 중심으로 『법화경』의 「견보탑품」을 위주로 해석하던 것과 달리 사천왕사에 통일신라 최초로 쌍탑을 조영한 불탑관인 『금광명경』에 의해 등장한 것이라는 새로운 견해들이 주목된다.

송복사지 석탑의 미술사적 의의로는 첫째, 쌍탑으로 조성된 원탑이라는 점이다. 통일신라에서 쌍탑이 조성된 사례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약 31곳이 확인된다.¹⁰³⁾ 이 중 경주지역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김천, 영천, 청도, 봉화 등에 분포하고 있어 주로 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주의

101) 강강철, 「쌍탑가람 배치계획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중규, 「신라사찰건축의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노상천, 「新羅 中代 雙塔의 造成背景에 대한 考察」,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연곤·이은정, 「한국고대가람의 회랑에 관한 연구」, 『환경개발연구논문집』 6,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소, 2001, pp.36~49.

102) 한정희, 「한국 고대의 쌍탑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장충식, 「신라 사천왕사지 단석의 고찰」, 『불교학보』 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2, pp.7~16.

郭敬淳, 「신라 四天王寺 雙塔에 관한 연구 -發生 背景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채무기, 「통일신라 쌍탑 출현에 관한 새로운 견해」, 『경주문화논총』 7,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4, p.77.

김상태, 「7세기 호국호법삼부경에 의한 신라호국가람과 동아시아 불교건축 비교-2탑식 가람의 전개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1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pp.123~148.

신용철, 「초기 신라 불탑관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pp.458~464.

이준호, 「통일신라시대 쌍탑 연구-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4~23.

신용철, 「통일신라 경주지역의 불탑배치에 관한 고찰」, 『미술사논단』 31, 한국미술사연구소, 2010, pp.19~22.

한정호, 「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석당논총』 4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0, pp.191~208.

103) 김천 직지사는 원래 석탑 3기가 있던 문경의 도천사에서 이견해 온 것이므로 제외하였고, 청도 운문사는 쌍탑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처음부터 쌍탑으로 조성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였다.(오세덕, 「雲門寺 東·西 三層石塔에 관한 고찰」, 『新羅文化』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pp.307~329.) 합천 월광사지도 석탑 2기가 나란히 서있으나 두 석탑 역시 건립시기의 차이가 확인하여 원래부터 쌍탑으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으며, 인제 한계사지는 사지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석탑 2기가 건립되어 있으나, 두 석탑은 건립 위치로 보아 쌍탑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여 제외하였다.

간월사지와 영축사지는 경주와 비교적 가까운 곳이므로 경주 문화권으로 포함시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주 일원에 쌍탑 조성 사례는 18 곳이 된다. 산청은 경남에 해당하나 지리산 문화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청, 남원에서 각각 1곳씩 확인되며, 보림사, 선암사, 횡성 중금리사지 등에서 1곳씩 확인된다. 이 가운데 목탑으로 조성된 쌍탑을 제외하면 경주 일원의 쌍탑 조성 사찰은 16곳으로 볼 수 있다.(<표 13>)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쌍탑으로 조성되었으며 원탑 성격을 갖는 경우인데, 숭복사지 석탑, 전 인용사지 석탑, 창림사지 석탑을 들 수 있다.

<표 13> 통일신라 쌍탑 건립 현황

연번	사찰(사지)명	지역	불탑재료	건립시기	비 고
1	사천왕사지	경주	목탑	679년	기단부 : 신장상
2	감은사지	경주	석탑	682년	
3	망덕사지	경주	목탑	685년	
4	장항리사지	경주	석탑	8세기 초	1층 탑신 : 금강역사상/문비
5	천군동사지	경주	석탑	8세기 초	
6	남산 남리사지	경주	석탑	8세기 초	
7	원원사지	경주	석탑	8세기 중엽	상층기단 : 십이지상 1층 탑신 : 사천왕상
8	보문사지	경주	목탑	8세기 초	
9	불국사	경주	석탑	8세기 중엽~말	석가탑/다보탑
10	전 인용사지 (인왕동사지)	경주	석탑	8세기 말	상층기단 : 팔부중상
11	창림사지	경주	석탑	9세기 전반	발굴조사 결과 석탑 2기 확인 상층기단 : 팔부중상
12	황룡사 서편 폐사지 (구 황동 제2사지)	경주	석탑	8세기 말	1층 탑신 : 사천왕상

연번	사찰(사지)명	지역	불탑재료	건립시기	비 고
13	남산 별천룡곡 제1사지	경주	석탑	8세기 말	
14	남산 포석계 기암곡 제2사지	경주	석탑	9세기	
15	황룡동 황룡사지	경주	석탑	8세기	
16	송복사지	경주	석탑	9세기 전반	상층기단 : 팔부중상 1층 탑신 : 문비
17	갈항사지	김천	석탑	758년	
18	청암사 수도암	김천	석탑	9세기 말	기단 : 안상 1층 탑신 : 사천왕상
19	화남동사지	영천	석탑	9세기	
20	장연사지	청도	석탑	9세기 초	
21	서동리사지	봉화	석탑	9세기 말	
22	동화사 금당암	대구	석탑	9세기 말	
23	부인사	대구	석탑	9세기 말	
24	북지장사	대구	석탑	9세기 말	
25	간월사지	울주	석탑	8세기 말	1층 탑신 : 금강역사 상/문비
26	영축사지	울주	석탑	8세기 말	
27	단속사지	산청	석탑	9세기 초	
28	실상사	남원	석탑	9세기 말	
29	보림사	장흥	석탑	870년	
30	선암사	순천	석탑	9세기 말	
31	중금리사지	횡성	석탑	9세기	상층기단 : 팔부중상

신라에서 석탑 조성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유입으로 공덕 성취의 개념이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원탑의 유행으로 이어지는데, 송복사지 석탑은 원성

왕을 위한 원탑 성격으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라의 불탑관은 삼국 통일이 한창이던 때에 감은사지 삼층석탑에서 보듯이 호국적 성격의 불탑관이 주류였지만, 통일 이후에는 개인 추복적 공덕 성격의 불탑관이 유행하게 된다. 이는 왕실 구성원 개인의 염원을 담은 願塔으로 조성되었으며 나아가 왕권 강화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었다.

傳 인용사지 석탑은 내부에서 납석제 소탑과 토제 소탑 바닥에 구경 1.5cm, 깊이 2.0/2.8cm의 구멍이 남아 있어 다라니경을 말아 소탑 내에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¹⁰⁴⁾되므로 『무구정경』에 의한 원탑으로 생각된다.¹⁰⁵⁾ 인용사는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의 원찰로 알려져 있다. 창림사는 창림사지 삼층석탑의 『昌林寺無垢淨塔願記』의 내용을 보면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國王永主人天會其報盡之日捨粟散之名齊於无上之位…維唐大中九年歲在乙亥夏首閏月日建”이라 하여, 무구정탑 건립의 공덕으로 인하여 국왕이 永久히 人天의 主가 되고 그 목숨이 다하는 날에는 粟散之名을 버리고 无上之位에 오르기를 발원하고 있다.¹⁰⁶⁾ 여기에서 國王慶膺은 문성왕(839~857)이며, 大中 9년은 855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숭복사 역시 원성왕의 원찰로 건립된 사찰로 석탑은 願塔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숭복사지 석탑이 쌍탑으로 조성된 원탑이면서 기단부에 팔부중상이 장엄되어 있다는 점이다. 팔부중이란 불교 경전에서 부처의 설법에 흔히 聽衆으로 등장하는 여덟 像으로 일반적으로 석탑 장엄, 탑 내 사리에 대한 外護의

104) 경주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傳 仁容寺址 發掘調査報告書』, 2009, p.100 및 242.

105) 현재의 절터가 인용사지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는 인왕동사지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용사지로 전해져 오고 있으므로 인용사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106) 문성왕은 재위 기간 4차례의 반란사건을 겪으며 왕권을 위협받았으나 왕실 외척으로서 공신세력을 대표하였던 金陽과 上大等 金禮徵의 활약 덕분에 모든 반란을 평정할 수 있었다. 이후 청해진 잔존 세력을 碧骨郡으로 이주시켰던 재위 13년(851)에는 唐나라로부터 佛經과 佛牙를 들여와 불교를 진흥시키는 한편 민심을 위무하고 왕실의 위엄을 드높이려 하였다. 그 결과 재위 17년(855)에 이르러 昌林寺에 「無垢淨塔願記」를 조성하여 祖父 金均貞의 淨土往生을 기원하는 한편 均貞系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고, 왕권의 신성함과 우월함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였다(姜在光, 「文聖王代의 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 造成的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探究』 7권,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1, pp.97~138.).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쌍탑으로 조성된 원탑이 창림사지, 인용사지, 숭복사지 등이며 이들은 공교롭게도 쌍탑으로 조성된 원탑이면서 기단부에 팔부중상이 조각되어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물론 모든 팔부중 석탑이 원탑이거나 쌍탑으로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서 이러한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현상으로 여겨진다.¹⁰⁷⁾ 아무래도 원탑, 특히 왕실이나 지배층 발원에 의한 석탑은 석탑 조형에 있어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대부분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건립된 것으로 원탑으로 쌍탑이면서 기단부에 팔부중상이 배치되는 구성이 특정한 계층의 원탑으로서 차별성을 부각해주는 의도로 이 시기에 유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탑 건립은 국왕 개인 또는 소수의 왕실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왕권 강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데, 9세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사찰 건립과 석탑 건립이 증가하면서 원탑 역시 경주를 벗어난 지역으로 확산된다. 9세기에 『無垢淨經』을 소의경전으로 건립·중수된 불탑 사례를 정리한 <표 14>¹⁰⁸⁾를 보면, 경상도를 벗어나 호남, 충청, 강원 지역에서도 원탑이 건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4> 『無垢淨經』을 소의경전으로 건립·중수된 9세기 불탑 사례

번호	명칭 및 출처	발원내용	연대	사리장엄구		
				소탑		다라니
				재질	수량	
1	창림사지 삼층석탑	衆生利益 生淨域 成就佛道	855년			다라니경 1축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107)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운문사 석탑은 두 석탑 모두 기단부에 팔부중상이 조각되어 있으나 동일시기에 쌍탑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므로 원탑 성격을 논하기 어렵다. <표 13>에서 보듯이 쌍탑이면서 기단부에 팔부중상이 있는 경우로 횡성 중금리사지도 들 수 있으나, 원탑 성격인지는 불분명하다. 어쩌면 이러한 특징을 볼 때, 원탑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건립 배경을 알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108) 이순영,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p.46~47의 <표 4> 인용.

번호	명칭 및 출처	발원내용	연대	사리장엄구			
				소탑		다라니	공반 유물
				재질	수량		
2	취서사 삼층석탑	生極樂 衆生利益	867년			“建立茲塔在 佛舍利十粒 作无垢淨一壇 壇師黃龍…”	
3	황룡사지 구층목탑		871년	석제	99기	“其中更依無垢淨經 置小石塔九十九軀 每軀納舍利一枚 陀羅尼四種 經一卷 卷上安舍利一具 於鐵盤之上…”	
4	仲和三年銘 舍利器	衆生菩提證 得	883년		77기	“…仲和三年更復□□將有普門寺玄 如大德依无垢淨光經造小塔七十七軀 寫眞言七十七本安處大塔…”	
5	해인사 묘길상탑	亡者追善 衆生利益	895년	녹유 토제	176기 ¹⁰⁹⁾	『무구정경』1 권, 다라니 176벌	답지 4매 외
6	성주사지 삼층석탑		9세기			金立之撰聖住寺碑 명문 “…無垢淨石塔…”	
7	동화사 석탑 사리장엄구		9세기	석제	53기		납석제 사리호
8	동화사 금당암 동·서삼층석 탑		9세기	석제	99기 다수		유제사리합 향목편 외
9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¹¹⁰⁾		863년	목제	3기		명문사리석합 금동사방불합 외
10	서동리 동삼층석탑		9세기	토제	99기	다라니편	납석제호 녹유사리병 외
11	선림원지 삼층석탑		9세기	납석제	64기		
12	동원리 삼층석탑		9세기	납석제	7기		수정구 외
13	부석사 삼층석탑		9세기	철제	1기		

번호	명칭 및 출처	발원내용	연대	사리장엄구			
				소탑		다라니	공반 유물
				재질	수량		
14	성주사지 동삼층석탑		9세기	토제	다수		
15	화엄사 서오층석탑 111)		9세기	종이	다수 (塔印)	6종 다라니 필사본	
16	삼화사 삼층석탑		9세기	납석제	25기		청동제 불대좌편, 철불편 등

9세기의 신라사회는 정치·사회적 변동과 함께 이제 특정 계층을 위해서만이 아닌 누구나 개인의 공덕을 위해서 불탑 건립이 가능해졌고 전국적으로 확산된다.¹¹²⁾ 신라에서 원탑은 7-8세기의 황복사지 삼층석탑이 대표적으로 국왕과 왕실 발원 원탑으로 건립된다. 9세기에 건립된 원탑을 보면,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과 보림사 삼층석탑과 같이 여전히 국왕 또는 왕족에 의해 발원된 원탑 건립이 지속되고 있어 선대 왕을 추모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취서사 삼층석탑은 중앙 귀족인 이찬 김양종의 딸 明端이 아들인 僧彦傳와 함께 발원하였고, 법광사 삼층석탑은 승려들이 발원하였지만, 왕족인 成德大王 즉, 金均貞이 檀越로 참여하고 있어 법광사는 왕족의 원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중앙귀족에 의해 지방으로 석탑 건립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피안사 삼층석탑은 신라의 최북단에 속하는 강원도 철원에서 지방민에 의해 건립되고 있어 석탑 건립에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¹¹³⁾(<표 15>)

109) 이 사리구의 소탑은 원래 『무구정경』에 의거하여 77기, 99기를 조성하여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1966년 도굴되었다가 회수되었을 때 19기가 망실되어 현재는 157기만 남아 있다.

110) 黃壽永, 「新羅 敏哀大王 石塔記」, 『史學志』 3, 단국사학회, 1969.

111) 정경재·박부자, 「화엄사 서오층석탑 발견 『무구정광다라니』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5, 한국서지학회, 2016, pp.149~181.

112) 이순영, 위 논문, p.62.

113) 이순영, 위 논문, p.64.

<표 15>는 이순영, 위 논문, p.63의 <표 5>를 인용·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신라 석탑의 원탑 건립 흐름을 볼 때, 원탑 건립도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라 석탑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석탑 건립 현상 속에서 송복사지 석탑은 경주 지역에 조성된 왕실 발원의 마지막 원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표 15> 願塔 건립과 발원층 현황

번호	석탑명	연대	발원층	내 용
1	황복사지 삼층석탑	692년	신목태후, 효소왕	“천수삼年임辰칠월이일승천소이 神陸太后 孝照大王奉爲 宗廟聖靈禪院伽藍建立三層石塔”
		706년 중수	성덕왕	“神龍二年庚午五月卅日 今主大王佛舍利全金彌陀像六寸一軀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安置石塔第二層”
2	갈항사 삼층석탑	758년	언적법사, 조문황태후, 원성왕의 이모 ¹¹⁴⁾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甥姊妹三人業以成在之 甥者零妙寺言寂法師在姊 姊者照文皇太后君姊在姊 妹者敬信太王姊在也.”
3	법광사 삼층석탑	828년	釋 香照, 圓寂 檀越成德大王(金均貞)	“會昌六年丙寅九月移建兼脩治願代代壇越生淨土今上福命長遠內舍利廿二枚上座道興 大和二年戊申七月香照師圓寂尼捨財建塔 寺檀越成德大王典香純”
		846년 중수	釋 道興, 香純	
4	창림사 무구정탑	855년	문성왕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5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863년	경문왕	“國王奉爲敏哀大王追崇福業造石塔記…桐藪願堂之前創立石塔…”
6	송복사지 삼층석탑	865년 이전	경문왕	“於是孝誠旁達 思夢相符 迺見聖祖大王 撫而告曰 余而祖也 而欲建佛像 飾護予陵域 小心翼翼 經始勿亟 佛之德 予之力 庇爾躬 允執厥中 天祿永終 … 遽命有司 虔修法會 華嚴大德釋決言承旨 於當寺 講經五日 所以申孝思而薦冥福也”
7	도피안사 삼층석탑	865년 이후	香徒	“…唐天子咸通六年乙酉正月日 新羅國漢州北界鐵員郡到彼岸寺成佛之信士入龍岳堅清于時入覓居士結緣一千五百餘人堅金石志勤不覺勞因”

114) 기록에 등장하는 3인은 언적법사 중심의 세 남매로 조문황태후는 원성왕의 어머니 繼烏夫

8	취서사 삼층석탑	867년	釋彦傳	“釋彦傳 母親諱明端 考伊浪金亮 宗公之季女 親自發弘誓 專起佛塔已 感淨土之業 兼利穢國之 生孝順此志 建立茲塔在 佛舍利十粒 作无垢淨一 稟稟師皇龍寺僧賢炬 大唐咸通 八年建”
9	보림사 동·서삼층석탑	870년	경문왕, 金遂宗	“造塔時 咸通十一年 庚寅五月日時 凝王卽位十年矣 所由者 憲王往生慶造之塔…”
10	선방사 석탑	879년 중수	忠心, 志萱, 林典, 道如, 志空	“乾符六年己亥五月十五日 禪房寺塔 練治內記…上和上忠心 第二志萱 大伯士釋林典道如 唯乃志空”
11	해인사 길상탑	895년	別大德 僧訓	“海印寺妙吉祥塔記 崔致遠撰 唐十九帝中興之際兵凶二災…海印寺別大德僧訓”

셋째, 숭복사지에 쌍탑의 팔부중 석탑과 쌍신두 귀부가 함께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숭복사지와 같이 팔부중상 석탑이 있는 창림사지가 석탑 조성에서도 공통점을 보이지만, 두 사찰 모두 쌍신두 귀부를 조성하였다는 점도 매우 주목된다.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쌍신두 귀부가 조성된 사찰로 창림사, 무장사, 법광사, 숭복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 역시 모두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라는 점이다. 창림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무장사는 원성왕의 아들인 昭聖王의 부인인 桂花부인이 소성왕의 극락왕생을 염원하기 위하여 아미타불을 조성한 왕실 원찰이다. 법광사는 9세기에 들어서면서 원성왕의 손자였던 김균정이 단월로 참여한 사찰이었으며, 이후에도 신무왕과 문성왕이 후원한 사찰로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은 모두 왕실의 원찰로 특히 원성왕계와 매우 밀접한 사찰이라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 쌍신두 귀부가 지속적으로 유행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이 시기에만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진 점, 그리고 모두 원성왕계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쌍신두 귀부는 이들의 왕권 강화 의도를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출현한 결과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 사찰에 쌍신두 귀부뿐만 아니라 석탑들도 팔부중상이 장엄되거나, 기단부에 안상을 조식하거나, 초층탑신받침에 변화를

人 朴氏로 조문황태후는 원성왕 즉위년에 추봉받은 명칭이다. 또 다른 여성은 경신태황의 이모라고 하였는데 원성왕의 휘가 敬信이므로 원성왕의 이모가 된다.(정병삼, 「갈항사 석탑기」,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276~278.)

주는 등 다른 일반형 석탑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쌍신두 귀부와 함께 원성 왕계 왕실 석조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쌍신두 귀부와 세트로 구성된 석탑 구성이 쌍탑, 팔부중상, 안상 또는 초층탑신받침 등 석탑 장엄 요소가 강조된다는 점이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송복사지의 경우 쌍탑과 쌍신두 귀부라는 유일하며 독특한 조합을 볼 수 있어 이 점에 있어 송복사지 석조유물은 통일신라 석조미술에 있어 매우 드문 경우로서 희소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는 통일신라 쌍신두 귀부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라 쌍신두 귀부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말에 이르는 짧은 시간 동안 출현한 조형으로 건립 시기 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세부 형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창림사지, 무장사지, 법광사지, 송복사지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는 짧은 시기 출현했던 신라 쌍신두 귀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부 형식 변화 양상은 9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다른 단신두 귀부의 변화 양상과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동시대 석조물의 흐름과 상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쌍신두 귀부 형식이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 이후 쌍신두 귀부는 고려~조선을 통틀어 불교 관련 석조유물에서는 사례를 거의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조선시대에 건립된 도동서원에서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의 신도비 귀부로 쌍신두 귀부 형식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비록 불교 관련 조형물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 쌍신두 귀부 형식이 등장한다는 점은 쌍신두 귀부 조영에 분명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쌍신두 귀부는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1626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귀두 이하로는 문혀 있어 지대석 등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쌍신두 귀부와 동일한 양식이다. 그러나 귀두가 목이 짧고 조선시대 귀부의 귀두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향 좌측의 귀부의 귀두는 목이 귀갑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귀갑문은 뚜렷하지 않으며 비좌는

등 가운데 연잎모양의 받침으로 장식되어 있다. 운룡문의 이수도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쌍신두 귀부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귀부의 주인공인 김굉필에 대해 퇴계 이황이 ‘近世道學之宗’이라 칭송할 만큼 당대 최고의 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김굉필의 신도비 귀부로 쌍신두 귀부 형식을 차용했다는 것은 신라에서도 왕실과 관련된 사찰에서만 등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 쌍신두 귀부는 흔하지 않은 조형이지만 조선시대에도 매우 특별한 의미의 조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송복사지의 가람배치와 송복사지에 전해지는 석조유물에 대해 살펴본 후 이들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송복사는 원래 鵠寺로 불리었으며 崔致遠이 지은 崇福寺碑銘 남아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왔다. 송복사는 원성왕릉을 조영하기 위해 곡사를 이건하면서 창건된 사찰로 경문왕, 헌강왕, 진성왕 등 왕실에서 지속적으로 후원과 중수를 거듭한 사찰로 왕실의 원찰이었다. 송복사가 지속적으로 왕과 종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중창이 이뤄진 것은 송복사 중창이 왕권을 강화하고 경문왕계 세력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불사였기 때문이었다.

송복사지는 토함산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줄기의 서쪽 기슭의 해발고도 160~170m 지점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송복사지가 위치한 외동읍 말방리는 경주에서 울산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상에 해당한다. 입지 상 송복사지 사역 아래, 즉, 서쪽편으로는 태화강의 지류인 東川이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송복사지의 입지를 볼 때, 송복사는 8세기 중엽 이후 경주 일원에서 사찰 건립이 점차 시가지 외곽으로 확장되어 가는 흐름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경주에서 석탑 건립 문화는 시가지 보다는 외곽에서부터 건립되는데, 8세기 중엽 이후가 되어야 경주 외곽 일원 및 남산에서 석탑 건립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송복사지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므로 입지 조건 역시 경주 외곽의 토함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주 지역의 석탑 건립 양상과도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복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상층기단의 팔부중상의 배치 및 조각수법, 1층 문비 형식, 옥개석 장엄공, 석탑 치석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두 석탑은 동일한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동시기에 제작된 쌍탑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상하층기단 탱주수가 1:2로 고정되었고, 귀틀형 결구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판석형 엇물림 결구방식이 정착된 것으로 보아 9세기 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송복사 창건 무렵인 9세기 전반으로 생각되며, 경문왕에 의해 중건

된 865년, 즉 9세기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 쌍신두 귀부 4기를 함께 고찰한 결과, 창림사지 쌍신두 귀부가 8세기 중엽~8세기 후반으로 가장 먼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무장사지 쌍신두 귀부는 8세기 말, 법광사지 쌍신두 귀부는 828년~846년에 해당하는 9세기 전반, 마지막으로 숭복사지 쌍신두 귀부는 886년~896년에 해당하는 9세기 후반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발굴조사 된 숭복사지의 가람배치를 분석한 결과 숭복사지 금당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 형식이며 불전 내부에 중앙 3칸에 내진벽체가 가설되어 있는 구조로 추정된다. 금당의 외형은 가구식 2중 기단이며, 사방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출입할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계단의 소맷돌은 사각석, 기단면석, 지대석을 모두 1매로 모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람배치도 작성에 있어 사역의 자연 지형과 함께 쌍탑 등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숭복사지 가람배치에서 귀부전지가 현재 숭복사지 가람 내가 아닌 별도의 구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람의 진입부가 단순하게 평지형 중문 형태가 아닌 불국사 자하문처럼 높이 3m 이상의 층계를 밟고 진입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3m의 계단 중간에 불국사나 사천왕사지 같은 누교가 가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숭복사지의 의의를 가람배치와 석조유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숭복사지 가람배치의 건축적 의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확인하였다. 첫째, 숭복사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연석 대석단 조성방식 이후 신라 산지사찰의 전형적인 석단 방식으로 자연석 대석단이 숭복사지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둘째, 숭복사지의 석누조를 통해 배수체계를 추정한 결과, 신라 사찰이 평지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배수체계가 아닌 산지사찰에 적합한 배수체계로의 변신이 불국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숭복사지와 원원사지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셋째, 숭복사지 별원의 귀부전지 성립을 통해 부속별원의 출현 시기를 토함산 일원의 산지사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숭복사지는 서라벌의 외곽에 조성되는 산지가람 사찰이지만 평지 가람과 같은 남-북 자오

선을 중심으로 가람 주축선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송복사지 석탑을 비롯하여 불국사, 원원사 등 토함산 일원 사찰의 쌍탑 구성의 여러 유형을 다양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석조유물의 미술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쌍탑으로 조성된 원탑이라는 점이다. 둘째, 송복사지 석탑이 쌍탑으로 조성된 원탑이면서 기단부에 팔부중상이 장엄되어 있다는 점이며, 경주 지역에 조성된 왕실 발원의 마지막 원탑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셋째, 송복사지에 쌍탑의 팔부중 석탑과 쌍신두 귀부가 함께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쌍신두 귀부는 모두 원성왕계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왕권 강화 의도를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출현한 조형이다. 특히 송복사지의 경우 쌍탑과 쌍신두 귀부라는 유일하며 독특한 조합을 볼 수 있어 이 점에 있어 송복사지 석조유물은 통일신라 석조미술에 있어 매우 드문 경우로서 희소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송복사지 쌍신두 귀부는 통일신라 쌍신두 귀부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쌍신두 귀부 형식이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도동서원에 조성된 김굉필 신도비가 쌍신두 귀부 형식이라는 점에서 쌍신두 귀부 형식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參考文獻】

1. 사료·경전

『三國遺事』

『三國史記』

『羅麗琳瑯攷』

2. 논문

<국문>

강강철, 「쌍탑가람 배치계획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姜在光, 「文聖王代の 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 造成의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探究』 7권,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1.

金福順, 「文武王의 佛教政策」, 『新羅文化』 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9.

金福順,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7, 2006.

김상태, 「7세기 호국호법삼부경에 의한 신라호국가람과 동아시아 불교건축 비교-2탑식 가람의 전개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13,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7.

김은화, 「韓國 塔婆의 門扉 研究」, 『東垣學術論文集』 6,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3.

김재홍, 「신라 왕경의 개발 과정과 발전 단계」, 『한국사학보』 52, 고려사학회, 2013.

김지현, 「경주 鑿藏寺址 史蹟과 삼층석탑에 대한 再考」, 『新羅文化』 4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김종규, 「신라사찰건축의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창겸, 「新羅 景文王代 ‘修造役事’의 政治史的 考察-王權強化策과 관련하여-,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1998.
- 郭敬淳, 「신라 四天王寺 雙塔에 관한 연구 -發生 背景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곽승훈, 「崔致遠의 四山碑銘 撰述에 대한 試論」, 『역사와 실학』 19·20, 역사실학회, 2001.
- 노상천, 「新羅 中代 雙塔의 造成背景에 대한 考察」,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남수, 「新羅 下代 王室의 祭禮와 元聖王 追崇의 정치사회적 의의」, 『사학연구』 108, 한국사학회, 2012.
- 박남수, 「新羅 下代 王室의 祭禮와 元聖王 追崇의 정치사회적 의의」, 『사학연구』 108, 한국사학회, 2012.
- 박남수, 「新羅 崇福寺碑 板本の 갈래와 崔致遠의 割註」, 『신라사학보』 27, 신라사학회, 2013.
- 박언곤·이은정, 「한국고대가람의 회랑에 관한 연구」, 『환경개발연구논문집』 6,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소, 2001.
- 박홍국, 「경주 남산리 3층석탑의 특이점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3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 신용철, 「統一新羅 八部衆像의 考察-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상을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3.
-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신용철, 「초기 신라 불탑관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 신용철, 「統一新羅 二重基壇石塔의 形式과 編年」, 『東岳美術史學』 9, 동악미술사학회, 2008.
- 신용철, 「新羅 八部衆 圖像 전개에 있어 雙塔의 역할」, 『정신문화연구』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신용철, 「통일신라 경주지역의 불탑배치에 관한 고찰」, 『미술사논단』 31, 한국미술사연구소, 2010.

- 申龍澈, 「신라석탑 문비조각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3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엄기표, 「新羅 塔碑의 樣式과 造型的 意義」, 『文化史學』 14, 한국문화사학회, 2000.
- 엄기표, 「新羅 雙身頭 龜趺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19, 한국문화사학회, 2003.
- 오세덕, 「雲門寺 東·西 三層石塔에 관한 고찰」, 『新羅文化』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 오세덕, 「경주 普門洞 寺址에 관한 고찰」, 『古文化』 8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3.
- 오세덕, 「遠願寺址 석조물의 조성시기와 가람배치 변화 추정」, 『新羅史學報』, 신라사학회, 2015.
- 오세덕, 「八空山 桐華寺의 창건시기와 伽藍의 변화과정 고찰」 79, 『불교학보』, 불교학회, 2017.
- 尹善泰, 「新羅 '崇福寺碑'의 復元-結·苦의 細註와 관련하여-」, 『불교미술』 16, 동국대학교박물관, 2000.
- 이근직, 「토함산지역의 역사적 고찰」, 『토함산지역 불교유적 조사 연구』,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0.
- 이근직, 「신라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 『동악미술사학』 11, 동악미술사학회, 2010.
- 李順英, 「신라석탑의 전개과정에 건립지역과의 관계」, 『文化史學』 43, 한국문화사학회, 2015.
- 이순영, 「삼척지역 신라 석탑의 양식과 특징」, 『이사부와 동해』 10, 한국이사부학회, 2015.
- 이순영,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준호, 「통일신라시대 쌍탑 연구-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호관, 「統一新羅의 龜趺와 螭首」, 『考古美術』 154·155, 한국미술사학회, 1982.

- 장충식, 「신라 사천왕사지 단석의 고찰」, 『불교학보』 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2.
- 장일규, 「송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역사학보』 192, 역사학회, 2006.
- 장일규, 「최치원의 화엄승전 찬술과 해인사의 화엄사상」, 『신라사학보』 창간호, 2004.
- 전정중, 「新羅石塔의 八部衆像에 關한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田正中, 「新羅石塔 八部衆像의 樣式과 變遷」, 『文化史學』 16, 한국문화사학회, 2001.
- 정경재·박부자, 「화엄사 서오층석탑 발견 ‘무구정광다라니’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5, 한국서지학회, 2016.
- 朱甫噉, 「『三國遺事』勝詮髑髏條의 吟味」,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 曹元榮, 「신라하대 팔부신중상 연구」, 『역사와 경계』 39, 부산경남사학회, 2000.
- 秦弘燮, 「慶州 甘山寺址·崇福寺址의 調査」, 『考古美術』 58, 考古美術同人會, 1965.
- 채무기, 「통일신라 쌍탑 출현에 관한 새로운 견해」, 『경주문화논총』 7,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4.
- 최순조·황보은숙, 「崇福寺 伽藍配置의 檢討」, 『경주사학』 33, 경주사학회, 2011.
- 崔柄憲, 「大崇福寺碑文」,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古代篇), 일지사, 1986.
- 한정호, 「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석당논총』 4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0.
- 한정희, 「한국 고대의 쌍탑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한재원,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像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한재원,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 圖像과 配置 研究」, 『미술사연구』 20, 미술사연구회, 2006.
- 황상주, 「경주지역 신라사지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黃壽永, 「新羅 崇福寺 碑片」, 『考古美術』 14, 考古美術同人會, 1961.

黃壽永, 「新羅 敏哀大王 石塔記」, 『史學志』 3, 단국사학회, 1969.
황수영·문명대, 「法廣寺址實測調査」, 『佛教美術』 1, 동국대학교박물관, 1973.
洪思俊, 「崇福寺 碑片」, 『考古美術』 15, 考古美術同人會, 1961.
洪思俊, 「鑿藏寺址 石塔復原에 대하여」, 『考古美術』 34, 고고미술동인회, 1963.

<일본>

水野さや, 「慶州崇福寺址東・西三層石塔の八部衆像について」, 『佛教藝術』 249, 2000.

3. 단행본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6.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박방룡, 『신라도성』, 학연문화사, 2013.
張忠植, 『新羅石塔研究』, 일지사, 1987.
황수영,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藤島玄治郎, 『韓의 建築文化-나의 研究 六十年-』, 李光魯, 기문당, 1986.
藤島玄治郎, 『朝鮮の建築文化』, 亞細亞文化社, 1929.
藤島玄治郎, 『建築雜誌』 577, 1933.

4. 도록·보고서

경주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경주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5.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토함산지역 불교유적 조사연구』, 2000.
경주시·(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慶州 崇福寺碑 復元事業敷地 内 遺蹟(1·2次)』, 2011.
경주시·경주대학교, 『경주지역 폐사지 석조문화재 조사연구』, 경주대학교, 20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慶州南山 南里寺址 東·西三層石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동아사아 고대사지 비교연구(Ⅱ)-금당지편-』,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日本 東京大學 所藏 韓國建築・考古資料』, 2005.

경주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傳 仁容寺址 發掘調査報告書』, 2009.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 1919(아세아문화사, 197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圖 版】



도 1. 승복사지 전경 (오세윤 촬영, 2005년)



도 2. 승복사지 동·서 삼층석탑 전경 (오세윤 촬영, 2005년)



도 3. 송복사지 토함산 자락 전경



도 4. 송복사지 비(복원), 동·서삼층석탑
(오세윤 촬영, 2016년)



도 5. 송복사지 동·서 삼층석탑 전경
(2018년)



도 6. 송복사지 동·서삼층석탑
(오세윤 촬영)



도 7. 송복사지 서·동삼층석탑
(오세윤 촬영)



도 8. 송복사지 동삼층석탑



도 9. 송복사지 동삼층석탑 1층 탑신



도 10. 송복사지 동삼층석탑 옥개석



도 11. 송복사지 동삼층석탑 찰주공



도 12. 송복사지 서삼층석탑



도 13. 송복사지 서삼층석탑 탑신부



도 14. 창림사지 귀부 귀신 목부분



도 15. 창림사지 귀부 앞발



도 16. 창림사지 귀부 꼬리 세부



도 17. 창림사지 귀부 비좌 부분



도 18. 무장사지 귀부 앞발



도 19. 무장사지 귀부 비좌 부분



도 20. 무장사지 귀부 귀두 부분



도 21. 법광사지 귀부 지대석 및 앞발



도 22. 법광사지 귀부 뒷발 부분



도 23. 법광사지 귀부 비좌 부분



도 24. 송북사지 귀부 귀두 부분



도 25. 송북사지 귀부 측면



도 26. 송북사지 쌍신두 귀부 복원



도 27. 傳 인용사지 석탑재 팔부중상



도 28. 창림사지 발굴 석탑 팔부중상



도 29. 창림사지 삼층석탑



도 30. 무장사지 삼층석탑



도 31. 범광사지 삼층석탑



도 32. 도동서원 김굉필 기부



도 33. 도동서원 김굉필 기부 귀두

慶州 崇福寺址 伽藍配置와 石造美術 研究

박 임 관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지도교수 오 세 덕

(국문초록)

경주의 많은 사지 가운데 하나인 崇福寺址는 외동읍 말방리 토함산의 서쪽 능선 말단부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절터로 최치원이 896년에 지은 四山碑銘이 남아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숭복사는 원래 鵠寺로 불리었는데, 원성왕릉을 조영하기 위해 곡사를 이건하면서 창건된 사찰로 경문왕, 헌강왕, 진성왕 등 왕실에서 지속적으로 후원과 중수를 거듭한 사찰로 왕실의 원찰이었다. 숭복사가 지속적으로 왕과 종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중창이 이뤄진 것은 숭복사 중창이 왕권을 강화하고 경문왕계 세력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불사였기 때문이었다.

숭복사지의 입지를 살펴보면, 토함산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줄기의 서쪽 기슭의 해발고도 160~170m 지점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숭복사지가 위치한 외동읍 말방리는 경주에서 울산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상에 해당하는데, 8세기 중엽 이후 경주 일원에서 사찰 건립이 점차 시가지 외곽으로 확장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을 보인다. 아울러 경주에서 석탑 건립 문화는 시가지 보다는 외곽에서부터 건립되는데, 숭복사지 석탑 역시 경주 지역의 석탑 건립 양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숭복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상층기단의 팔부중상의 배치 및 조각수법, 1층 문비 형식, 옥개석 장엄공, 석탑 치석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두

석탑은 동일한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동시기에 제작된 쌍탑으로 9세기 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문왕에 의해 중건된 865년, 즉 9세기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라 쌍신두 귀부 4기를 함께 고찰한 결과, 창림사지, 무장사지, 법광사지, 숭복사지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발굴조사된 숭복사지의 가람배치를 분석한 결과 숭복사지 금당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 형식이며 불전 내부에 중앙 3칸에 내진벽체가 가설되어 있는 구조로 추정된다. 또한 숭복사지 가람배치에서 귀부전지가 현재 숭복사지 가람 내가 아닌 별도의 구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람의 진입부가 단순하게 평지형 중문 형태가 아닌 불국사 자하문처럼 높이 3m 이상의 층계를 밟고 진입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계단 중간에 불국사나 사천왕사지 같은 누교가 가설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마지막으로 숭복사지의 의의를 가람배치와 석조유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람배치의 건축적 의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확인하였다. 첫째, 숭복사지에서 처음으로 자연석 대석단 조성 방식이 시작되었고 이후 신라 산지사찰의 전형적인 석단 방식으로 조성되어 왔다는 점, 둘째, 숭복사지는 산지사찰에 적합한 배수체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숭복사지 별원의 귀부전지 성립을 통해 부속별원의 출현 시기를 토함산 일원의 산지사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 넷째, 숭복사지는 서라벌의 외곽에 조성되는 산지가람 사찰이지만 평지가람과 같은 남-북 자오선을 중심으로 가람 주축선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숭복사지 석탑을 비롯하여 불국사, 원원사 등 토함산 일원 사찰의 쌍탑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석조유물의 미술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쌍탑으로 조성된 원탑이라는 점, 둘째, 숭복사지 석탑이 쌍탑으로 조성된 원탑이면서 기단부에 팔부중상이 장엄되어 있다는 것과 경주 지역에 조성된 왕실 발원의 마지막 원탑이라는 점, 셋째, 숭복사지에 쌍탑의 팔부중 석탑과 쌍신두 귀부가 함께 조성되었는데, 쌍신두 귀부는 모두 원성왕계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왕권 강화 의도를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출현한 조형이라는 점, 넷째, 숭복사지

쌍신두 귀부는 통일신라 쌍신두 귀부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 다섯 째, 쌍신
두 귀부 형식이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주제어 : 숭복사지, 숭복사지 쌍탑, 숭복사지 가람배치, 팔부중 쌍탑, 신라사찰

Study on Temple Arrangement of Seongboksaji and Stone Art

(慶州 崇福寺址 伽藍配置와 石造美術 研究)

Park, Imkwan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Oh, Sedeok

(Abstract)

One of many temples of Gyeongju, Sungboksaji is the temple site located in Malbang-li, Oedong-eup, on the gentle slope of the western ridge end of Tohamsan Mountain, well known as the place where the Sasan epigraphy Choi Chiwon built in 896 remained. Sungboksa temple was originally called Goksa temple, which was built as Goksa was relocated to establish Wonseong royal tomb, a royal temple that continuously repeated Huwon and Jungsu by the royal family, such as King Gyeongmun, King Heongang, King Jinseong. Sungboksa temple was continuously built under full support of the King and royal family, since it was a symbolic temple to reinforce royal authority and unify King Gyeongmun line power.

Sungboksa temple is located on a slow slope around altitude 160~170m of western shore of a southern branch of Tohamsan mountain chain. Malbang-li, Oedong-eub, where Sungboksa temple is located, belongs to a traffic route between Gyeongju and Ulsan, which shows a stream of period that temple construction was extended to the town suburb since the mid 8th century. Also, stone pagoda construction culture of Gyeongju began from the suburb instead of downtown area, stone pagoda of Sungboksa temple also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Gyeongju area stone pagoda construction.

Sungboksa temple east-west three-story stone pagoda is a twin pagoda built during the same period using the same design drawing, considering the arrangement and sculpting technique of Palbujungsang of upper layer, Munbi form, Okgaeseok jang-eomgong, stone pagoda stone layering, etc. on the whole, which see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9th century, in around 865, built by King Gyeongmun, which is mid 9th century. Also, as the result of considering also Silla Ssangsinu Gwibu 4 units, they are assumed to have been built in order of Changrimsaji, Mujangsaji, Beobgwangsaji, Sungboksaji.

As the result of analyzing Garam arrangement of excavated Sungboksaji, the surface of Sungboksaji Geumdang was in 5 rooms on the front and 3 rooms on the side, and earthquake-proof was installed in the central 3 rooms inside. Also, there's a high possibility that Gwibujeonji was located in a separate space in Garam arrangement of Sungboksa temple, instead of current location, in Sungboksa temple Garam. And the entry of Garam is supposed to be a high step over 3m, just like Bulguksa Jahamun gate, instead of a simple flat mid-gate, and Nugyo such as Bulguksa or Sacheonwangsaji were built in the middle of the stairway.

Lastl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of Sungboksa temple by dividing into Garam arrangement and stone building. The 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Garam arrangement was confirmed largely in 5 points. First, natural stone construction began firstly in Sungboksa temple, later, it was established as a typical stone layer of Silla mountain temple, second, Sungboksa temple showed a drainage system proper for mountain temple, third, Busokbyeolwon appeared from mountain temple of Tohamsan mountain area through establishment of Sungboksaji Byeolwon Gwibujeonji, fourth, Sungboksaji was a mountain Garam temple constructed around Seorabeol, however it formed a Garam main line mainly with south-north meridian just like a flatland Garam, fifth, diversity was formed in composition of twin pagoda of Tohamsan mountain temples such as Bulguksa, Wonwonsa, etc. including Sungboksa temple stone pagoda.

In respect of art historical significance of stone building, first, it was a twin pagoda based round tower, second, it was a round tower based on stone twin

pagoda with Palbujungsang on the stylobate, as the last round tower built by royal family, built in Gyeongju area, third, stone tower and Ssangsinu Gwibu were built in Sungboksa temple together among Palbu of twin tower, which was a sculpture to express an intention to reinforce royal authority symbolically, in respect that each of them were related to Wonseongwang line royal family, fourth, Sungboksa temple Ssangsinu Gwibu was the last work of Ssangsinu Gwibu of unified Silla, fifth, the form of Ssangsinu Gwibu was also found in Gyeongsangdo during Joseon Dynasty.

Key words : Sungboksaji, Sungokaji twin pagoda, Sungboksaji Garam arrangement, Palbujug twin pagoda, Silla temple